

제2권
제3호 통권6호

2006년 여름호

2006년 7월 18일 발행
ISSN 1739-8231

여름호

www.foc.re.kr

수산물 수급정보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업관측센터
FISHERIES OUTLOOK CENTER



FISHERIES

OUTLOOK

CENTE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수산물의 수급 및 해외동향 등 실수요자에게 유용한 수산정보를 계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수급동향 정보와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해서는 당 센터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산업관측센터
FISHERIES OUTLOOK CENTER

여름호
www.foc.re.kr

수산물 수급정보



FISHERIES



OUTLOOK



CENTER





| 집중분석/3

육상채묘 확산에 따른
김 산업의 문제점 고찰

4

| 생산 및 가격동향/9

김	10
넙치	18
조피볼락	24
굴	29
전복	35

| 수출입동향/41

김	42
활어	43
패류	46

| 시장동향/47

김	48
활어	51

| 해외동향/55

일본	56
중국	62

| 해황 및 기상예보/67



focus

Part I

집중분석

육상채묘 확산에 따른 김 산업의 문제점 고찰 4

KMI

집필진

- 황 기 형(총괄)
- 옥 영 수(생산·수급동향)
- 강 종 호(시장·해외동향)
- 안 재 현(김 생산)
- 백 은 영(가격, 일본 해외동향)
- 이 남 수(시장, 전복 가격, 중국 해외동향)
- 김 상 태(전복 생산, 수출입동향)
- 김 정 협(넙치 생산)
- 이 창 수(조피볼락·굴 생산)
- 신 수 정(자료수집)

본 책자는 기존 격월간 발행에서 2006년 봄호부터 계간 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김, 넙치, 조피볼락, 굴, 전복의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급동향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가을호부터 미역, 돔, 농어를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01

집중분석

육상채묘 확산에 따른 김 산업의 문제점 고찰



안 재현 책임연구원
KMI 수산업관측센터

1. 문제의 제기

육상채묘와 냉동망에 의한 김 양식이 2007년 어기부터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희망 어가를 대상으로 육상채묘 및 냉동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양식방법은 부산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초기 시설비용이 높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균일한 채묘와 고품질 김의 계획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생산 및 수급조절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김의 2모작 양식이 가능하므로 다른 채묘방식에 비해 채취횟수와 단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2006년산 전국 김 시설량과 생산량이 작년보다 각각 1.3%와 5.4%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판가격도 작년 어기 대비 평균 12.8% 하락하였다. 따라서 이번 사업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물김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육상채묘와 냉동망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주장되어 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성 증대와 품질 개량 등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것이 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2차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남에서 올해 추진하는 동 사업과 김 생산량과의 관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육상채묘 및 냉동망 현황

육상채묘란?

육상채묘는 인공채묘방식의 일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공채묘라 하면 일반적으로 김 사상체가 배양된 굴 패각을 김발에 매달아 바다에서 채묘하는 해상채묘를 말한다. 그러나 육상채묘는 굴 패각을 해상이 아닌 육상수조에서 포자 발아를 유도하고, 물레를 이용하여 김발에 균일하게 부착시켜 일시에 대량으로 채묘하는 것으로서 최근 국내에 도입된 방식이다. 또한 육상채묘의 경우 적절한 해양환경이 될 때까지 김발을 해상에 설치하지 못하므로 동결보관¹⁾(냉동망)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의 육상채묘 및 냉동망 동향

냉동망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에서 기술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에 관련 기술과 기반시설, 그리고 교통 및 도로 여건 등이 열악하였고, 어장 생산력이 과거에는 양호하여 어민들이 냉동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남의 경우 1980년대 중반 무렵에 동아채묘 방식이 발견되면서 냉동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도 보급이 안된 이유 중 하나이다. 부산에서는 1997년에 냉동망과 함께 set형 김발²⁾을 도입하여 김발 교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현재까지 대다수 어업인들이 김 양식에 이용하고 있다. 육상채묘 기술은 2000년도에 부산에서 일본 기술을 도입한 것이 최초이며, 김 양식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2003년부터이다. 현재 육상채묘된 김발의 대부분은 부산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서해안 및 전남 등 일부 해역에서 일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작년에 지자체 지원으로 3,000척 분량의 육상채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희망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에서도 2년 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본격적으로 양식업에 도입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 및 부산의 육상채묘 방식과 해남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육상채묘 비교〉

구분	일본	부산	해남
시기	1970년대 후반	2000년	2005년
사상체배양	수하식	수하식 및 평면식	평면식 (일부 수하식)
채묘시기	9월	9월	10월
양성방법	무노출부류식 (10월~4월)	무노출부류식 (10월~4월)	노출부류식 (1월~4월)
	1모작 : 본망 2모작 : 본망→냉동망		
채취간격	10~20일	7일~10일	20일

주 : 부산은 올해부터 채묘량의 80% 이상을 수하식 배양 사상체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

1) 동결보관은 김을 기능장해나 동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저온상태에 두어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임.

2) set형 김발 : 20m 길이의 김발수집개를 서로 엮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무노출로 양식하는 방식.

III. 육상채묘 확산에 따른 문제점

고품질, 안정적 생산 가능

육상채묘 및 냉동망을 이용하면 원하는 시기에 균일하고 정확한 채묘가 가능하므로 종묘, 인력 등 채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포자의 균일한 채묘는 결과적으로 김발에 기타 조류의 부착을 방지하게 되므로 산처리 감소하게 된다. 또한 양식시기 조절을 통해 갯병이나 해황 변동 등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므로 김 채취횟수와 단위 생산량이 증가한다. 더욱이 2모작을 하는 경우 작황이 좋은 시기의 김을 선택적으로 채취할 수 있어 생산량을 더욱 극대화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육상채묘시설〉



따라서 각 해역 특성에 맞는 육상채묘 및 냉동망 기술개발을 통해 해역에 적합한 고품질의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해남에서 추진하는 육상채묘의 목적도 김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품종 개발로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해남에서 김 생산이 저조한 11월~1월 사이에 품질 높은 육상채묘 김을 생산한다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 억제가 필요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대에만 치중하는 경우 오히려 김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동 기술의 도입이 시설확대와 생산증가로 이어진다면 또다시 가격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남의 2006년산 김 시설은 약 10만 5천 채, 생산량은 약 1,835만 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인공위성 관측 및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결과)

해남에서 만일 기존의 김 시설을 감축하지 않고 육상채묘 양식을 시도한다면, 현재 해남 생산량의 50% 이상 생산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의 올해 육상채묘 사업 규모와 계획에 근거하여 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이러한 과잉생산의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육상채묘 조건〉

- 물레 개수 : 28개

- 물레 1대 1일 채묘 기능량
최소 75채~최대 125채
- 채묘 기간 : 20일(10월)
- 채취 횟수 : 4회조
- 1회 채취시 1채당 생산량 :
1.5자루(1자루=60kg)
- 마른김 1속 소요 물김량 ≒ 2,411 kg

〈채묘가능 채수〉

- ① 75채/일×28대×20일 ≒ 4만 2천 채
- ② 125채/일×28대×20일 ≒ 7만 채

〈생산 증가량〉

- ① 4만 2천 채×1.5자루×4회조 채취
×60kg ÷ 2,411 ≒ 627만 속
- ② 7만 채×1.5자루×4회조 채취
×60kg ÷ 2,411 ≒ 1,045만 속

〈증감률〉

구분	2006년산	2007년산 추정	증감률
해남기준	1,835만 속	2,462~2,880만 속	34.2%~56.9%
전국기준	1억 1,082만 속	1억 1,709~1억 2,127만 속	5.7%~9.4%

상기의 증감률은 1모작인 경우에 해당하며 만일 육상채묘를 통해 2모작 양식이 시도되는 경우 채취횟수와 단위 생산량의 증가로 생산 증가율은 위의 추정치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 해남의 올해 생산 규모가 전국의 16.6%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해남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니다. 더욱이

육상채묘가 근래에 해남, 완도 등 부산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육상채묘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적절한 관리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IV. 시사점

해남에서 실시하는 2007년산 김 육상채묘 사업은 기존의 기술, 경험, 자금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된 상태이다. 또한 생산집중에 따른 저품질 김 출하와 이에 따른 위판가격 하락으로 가공업체와 마찰을 겪으면서 어업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김 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해남의 경우 육상채묘사업을 통해 채묘 및 양식시기를 조절하여 김 생산의 공백기간을 활용하는 수급 및 가격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분야이건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및 효율성 증가는 적절한 통제가 따르지 않는 한 공급과잉의 문제를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한 적절한 생산통제가 뒤따라주어야 한다.

일본의 김 산업을 예로 들면, 종묘배양, 채묘, 양성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조합단위의 일괄적인 관리 및 통제를 통해 김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갯병이 발생하였거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김발을 교체해야 할 경우, 김의 노후화로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조합의 지시에 따라 김발 철거와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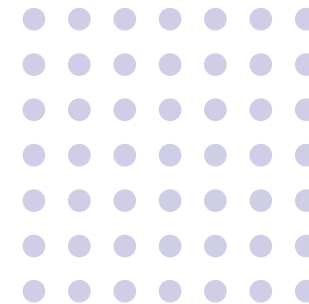
체 등 김발 관리가 협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김 채취량과 가공생산량 역시 개인이 아닌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르고 있다.

물론 초기부터 일사불란한 관리체제는 어려울 것이나 우선 정부 측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어업인들에게 우리나라 김 산업의 현황과 함께 육상채묘 및 냉동망 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육상채묘가 전국적으로 확

산되기 전에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히고, 종묘배양, 채묘, 채취 및 가공 단계에서의 수급조절 등 관리방안과 자율적 수급조절에 대해 어업인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냉동망과 육상채묘가 크게 확산될 상황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 둔다면, 우리나라 김 산업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Productions &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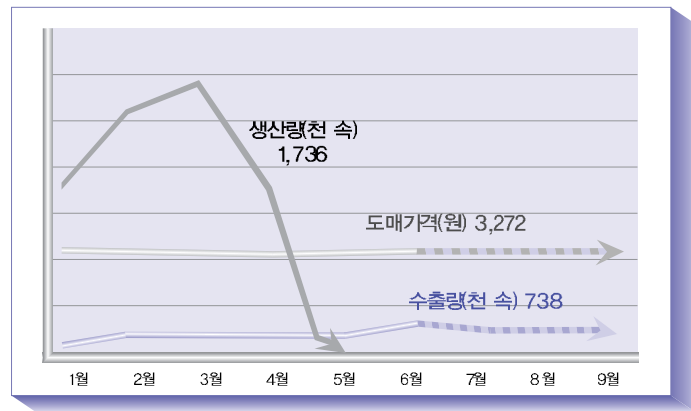
Part II

생산 및 가격동향

김	10
넙치	18
조피볼락	24
굴	29
전복	35

01

김



수급전망

- 2006년산 김 작황은 양호하였으며, 이 결과 2006년산 총생산량은 약 1억 천만 톤으로 작년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산의 경우 전남 일부지역에서 냉동망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황이 예년 수준을 보일 경우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수출의 증가 등으로 김 도매가격은 다소 양호하게 나타났다. 올해 초 물김 위판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4월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화입김이 본격적으로 반입되는 7월 이후 도매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 2006년산 김 생산 약 1억 천만 톤으로 추정

2006년산 김 총생산량은 작년보다 5.4% 증가한 1억 천만 톤으로 추정된다. 김 생산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는 금년 3월로 2006년산 총 생산량의 26.1%인 2천 9백만 톤이 생산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생산량이 7천 775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0.1%를 차지하였고, 시·군별로는 전남 해남이 1천 835만 톤(전국 대비 16.6%)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김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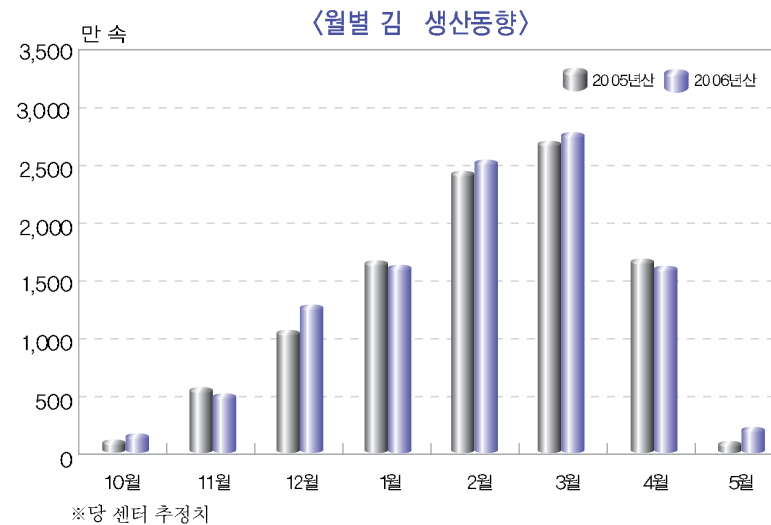
(단위: 만 톤, %)

구 분		2005년산		2006년산		증감 (b/a)
		생산량(a)	점유율	생산량(b)	점유율	
합 계		1억 513	100.0	1억 1,082	100.0	5.4
전남	소계	7,225	69	7,775	70.1	7.6
	신안	1,422	13.5	1,294	11.7	-9.0
	진도	1,438	13.7	1,578	14.2	9.7
	해남	1,203	11.4	1,835	16.6	52.5
	완도	1,568	14.9	1,319	11.9	-15.9
	고흥	774	7.4	958	8.6	23.7
	기타	820	7.8	791	7.1	-3.5
전북		1,279	12.2	1,215	11.0	-5.0
충남		676	6.4	1,061	9.6	57.0
부산		965	9.2	709	6.4	-26.5
경기		368	3.5	322	2.9	-12.5

※당 센터 추정치

- 2/4분기 김 생산 작년 동기대비 다소 증가

2/4분기에는 전국 내만 어장을 중심으로 김 생산이 종료되고 김발 철거가 시작되면서 지난 분기보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작년 동기기간보다 6% 정도 높았는데, 이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채취횟수와 작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남 해남·진도·완도 등 일부 외해 어장은 동아채묘 김발을 중심으로 5월에도 생산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산 작황, 작년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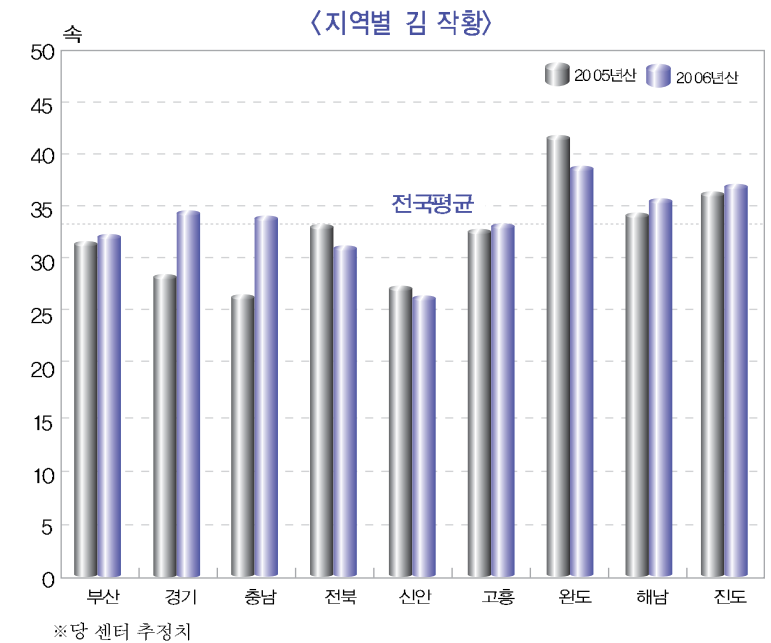
* 작황
1회 채취시 1책당 생산량

2006년산 김 작황*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년 연말의 기상악화로 올해 1월의 생산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2월부터 해황이 안정되면서 김 성장이 회복되어 전체적인 작황수준은 작년과 비슷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및 전남 완도·해남·진도 산지가 전국 평균 33.6속보다 많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저조하였다.

2006년산 어기의 초기 및 중반기에는 부산과 지주식 양식이 대부분인 신안 어장의 작황이 부진하였고, 후반기에는 고흥 어장의 작황이 부진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2/4분기 작황, 작년 동기기간 대비 크게 증가

● 올해 시설채수는 68만 5천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

* 인공위성 영상 촬영 :
대만 FORMOSAT-2 위성을
이용하여 김 및 전복 가두리
를 대상으로 39개 지역에서
2월~3월까지 촬영

이번 분기 김 작황의 경우, 4월부터 마지막 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분기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기상여건이 5월까지 지속되면서 작년 동기기간보다 작황이 1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산 김 시설에 대한 위성영상* 판독 결과, 총 시설채수는 68만 5,373책으로 작년의 67만 6,749책보다 1.3% 증가하였다. 그러나 허용기준 채수(시·군 부과량)보다는 오히려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 신안의 시설채수가 각각 34.1%, 24.9%로 크게 감소한 반면, 충남, 전북 및 전남 해남은 각각 32.6%, 20.0% 및 26.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기 및 전남 진도·완도의 시설채수는 작년과 비슷하였다.

한편, 지역별 허용시설량과 실제시설량을 비교해보면, 부산,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신안·해남·강진·고흥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물량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불법시설 비율 작년보다 감소

2006년산 시설채수 대비 준법시설(법정면허지내 시설) 비율은 60.1%로 작년의 52.9%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의 시·군에서 부과하는 허용시설량이 늘어나면서(2005년 보다 20.0% 증가) 불법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불법시설 비율은 전북이 84.6%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는 현재 불법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허용시설, 실제시설 및 준법시설 채수〉

(단위: 채 2.2m×40m)

구분	2005년			2006년			C/B(%)	B/A(%)
	허용시설	실제시설(A)	준법시설	허용시설	실제시설(B)	준법시설(C)		
전국	572,745	676,749	358,123	687,026	685,373	411,789	60.1	1.3
부산	16,495	38,528	18,519	20,160	25,404	13,251	52.2	-34.1
경기	16,130	16,499	10,011	14,724	14,724	14,724	100.0	-10.8
충남	22,945	48,712	22,579	58,029	64,602	23,600	36.5	32.6
전북	32,141	80,537	9,497	45,216	96,679	14,916	15.4	20.0
전남	485,034	492,473	297,517	548,897	483,964	345,298	71.3	-1.7
(신안)	(85,155)	(128,996)	(77,890)	(94,480)	(96,877)	(54,690)	(56.5)	(-24.9)
(해남)	(95,953)	(82,874)	(48,218)	(91,547)	(104,725)	(85,523)	(81.7)	(26.4)

※당 센터, 인공위성 영상 관측결과(2005년, 2006년)

주: 1. 허용시설: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설가능채수(법정면허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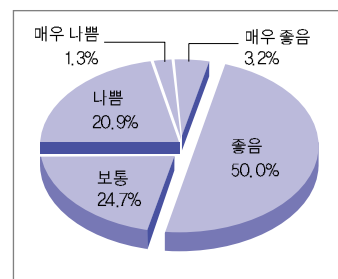
2. 실제시설: 해당 지역의 시설채수 총합

3. 준법시설: 실제시설 중 법정면허지내 시설채수

● 물김 품질은 작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

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2006년산 김의 품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어가의 53.2%는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24.7%는 보통인 것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산 김 품질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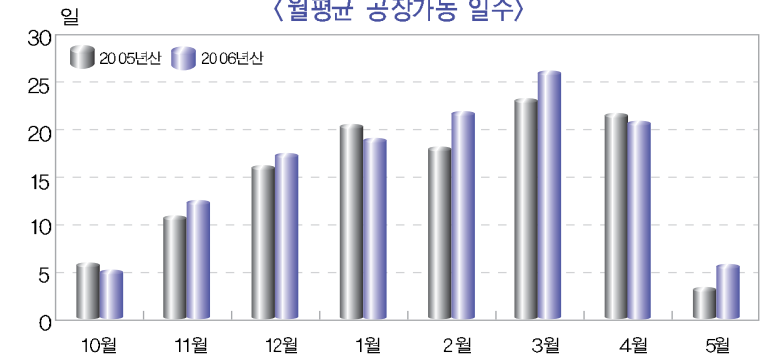


자료: 표본어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2006년 5월)

● 산지 1차 가공업체 2/4분기 가공일수 작년 동기간 대비 다소 증가

전국에 소재한 산지 1차 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산 마른김 가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가동일수는 약 16일로 작년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2/4분기의 총 가동일수는 올해 5월의 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년 동기간의 약 26일보다 3.4% 증가한 약 27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공장가동 일수〉



자료: 산지 1차 가공업체(75개소) 설문조사 결과, 각 월

이번 분기에 가공된 김은 일반김 55.2%, 재래김 22.2%, 돌김 14.2% 그리고 파래김 8.4%로 나타나, 지난 분기에 비해 일반김과 파래김의 비율은 증가하고, 돌김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기별 마른김 가공비율〉

구분	일반김	돌김	재래김	파래김	총합계
1/4분기	48.4%	21.8%	27.8%	2.0%	100.0%
2/4분기	55.2%	14.2%	22.2%	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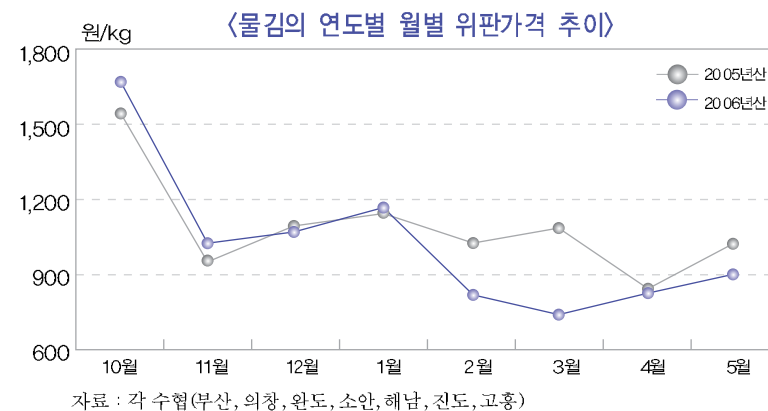
자료: 산지 1차 가공업체(75개소) 설문조사 결과, 각 월

가격동향

● 2006년산 물김 위판가격, 작년 대비 12.7% 하락

2006년산 물김 위판가격은 지난 어기 대비 12.7% 하락한 kg당 892원이었다. 2005년산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던 위판가격은 2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3월에는 kg당 734원으로 이번 어기 최저가를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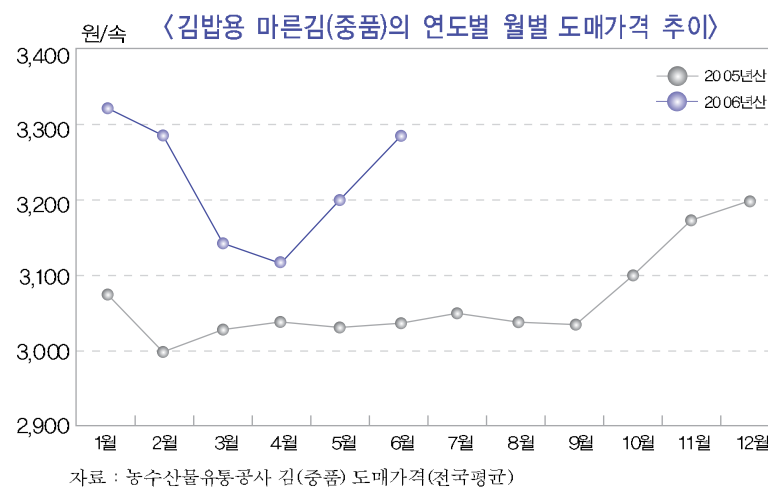
그러나 4월과 5월에는 대형업체들의 물김 구매수요가 집중되면서 3월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kg당 900원 전후에 거래되었다.



● 마른김 도매가격,
작년 2/4분기 대비
4.9% 상승

김밥용 마른김 중품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4.9% 높은 속당 3,199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1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도매가격이 4월에는 속당 3,124원으로 최저가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가격이 반전되어 6월에는 전월 대비 2.2% 상승한 속당 3,272원이었다. 이는 시장의 거래물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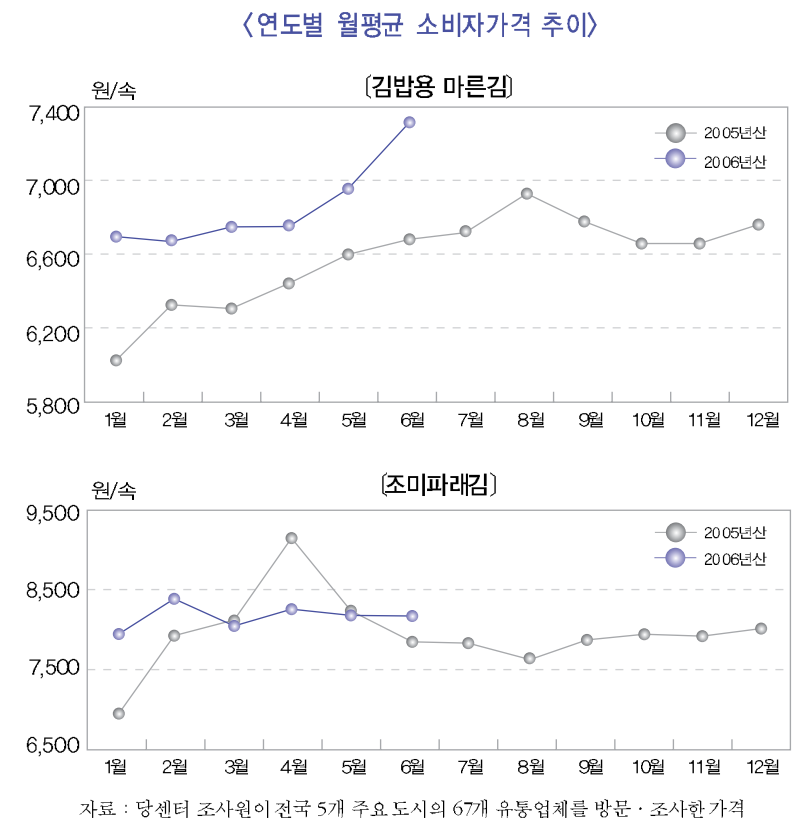


● 김밥용 마른김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2/4분기 대비 상승

김밥용 마른김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6.0% 상승한 속당 6,980원이었으나, 조미파래김은 1.2% 하락한 속당 8,19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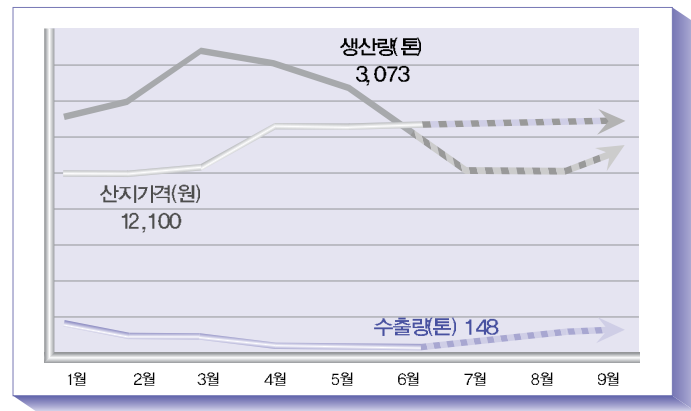
김 제품별로 보면, 김밥용 마른김은 지난 분기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6월의 가격이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각각 3.9%, 7.5% 상승한 속당 7,207원으로 최고가를 형성하였다.

조미파래김은 재고 부족으로 다른 제품이 할인 행사용으로 대체되면서 3월 이후 속당 8,100원대의 보합세를 보였다.



02

넙치



수급전망

- 작년 말 출하량이 크게 증가한 이후 1/4분기 이후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 20% 가량 물량이 감소하였다. 또한 양성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7월 이후에도 출하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3/4분기 이후에는 연말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출하량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 출하량 감소로 산지가격은 올해 초부터 작년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 5월 이후 Kg당 12,00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런 추세는 출하량 감소로 인해 3/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동향

- 2/4분기 활넙치 출하량, 지난 3월 이후 감소 추세

이번 분기 활넙치 출하량은 지난 1/4분기보다 5% 가량 증가한 10,325톤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약 20% 감소한 것이다. 월별 출하량은 지난 3월 이후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500g 이상 크기의 양성 물량이 감소한데다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를 맞아 양식어가들이 중소형어의 성육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크기별로는 1kg 미만의 출하량은 3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6월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는 선별작업 이후 상품성이 떨어지는 중소형어를 주로 출하했기 때문이다. 반면 1kg 이상 크기의 출하량은 산지가격 상승과 정부수매의 영향으로 인해 월별로 비슷한 출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별·크기별 넙치 출하 동향〉

(단위: 톤)

	1/4분기	2/4분기				1/4분기 대비(%)
		4월	5월	6월	계	
합계	10,324	4,013	3,773	3,073	10,859	5.2
500g 미만	540	173	158	63	394	-26.5
500g~1kg 미만	4,381	1,993	1,858	1,238	5,089	16.2
1kg 이상	5,403	1,847	1,757	1,771	5,37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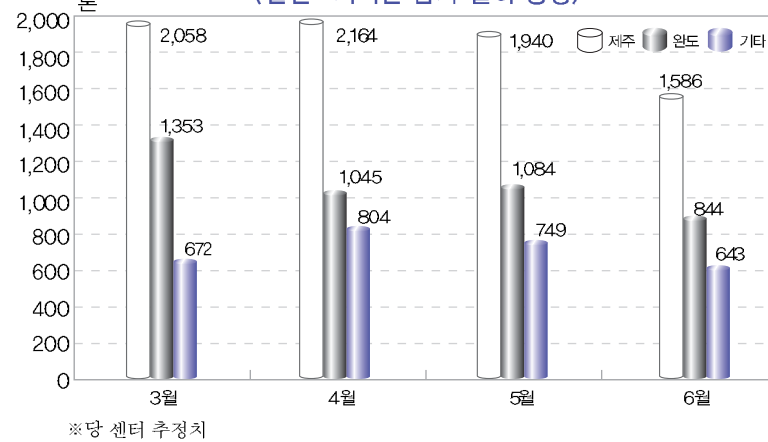
※당 센터 추정치

- 지역별 출하량, 제주가 5,690톤으로 가장 많아

4월부터 6월말까지에 지역별 누적 출하량을 살펴보면, 제주 및 완도가 각각 5,690톤, 2,973톤, 기타 지역은 2,196톤을 출하하였다. 제주와 기타 지역은 지난 분기보다 각각 4.1%, 21.5% 증가한 반면, 완도는 15.1%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및 완도 그리고 기타 지역의 출하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출하와 폐사로 인해 양성 물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국내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의 경우에는 대일 수출 부진도 출하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월별·지역별 넙치 출하 동향〉



● 2/4분기 입식량, 약 4,000만 마리로 추정

이번 분기 입식량은 4,000여만 마리로 작년 동기간보다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입식 시기인 4~5월에 입식된 치어에서 어병으로 인한 폐사가 많이 일어나자 6월에 추가 입식을 한 양식어가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4월에 입식된 치어가 1,160여만 마리, 5월은 1,640여만 마리가 입식되었다. 반면 6월에는 전월보다 약 24% 감소한 1,240여만 마리가 입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월별 넙치 치어의 입식 추이〉



● 양성 물량, 500g 미만에서 증가

양성 물량은 3월 이후부터 6월까지 500g 미만 크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500g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4~5월까지의 월별·크기별 양성 물량은 주 입식 시기를 맞아 500g 미만에서 증가한 반면, 500g 이상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섭이는 활발해졌지만 출하와 폐사로 인해 감소한 물량을 성장 물량이 보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별·크기별 양성 물량 동향〉

(단위 : 만마리)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합 계	8,846	9,367	10,556	10,049
250g 미만	4,675	5,793	6,648	6,065
250g~500g미만	1,667	1,410	1,889	1,868
500g~1kg미만	2,086	1,768	1,668	1,805
1kg 이상	418	396	351	311

※당 센터 추정치

한편 6월은 500g~1kg 미만에서 섭이량 증가로 인해 중소형어의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양성 물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g 미만에서는 어병에 의한 폐사로, 1kg 이상에서는 정부수매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 성장 상태, 섭이량 증가로 호전

3월 이후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섭이량이 증가하면서 성장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어병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폐사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4월에는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섭이가 원활해졌기 때문에 전월보다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월에는 전월에 비해 좋아지긴 하였으나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500g 미만 크기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해 폐사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6월은 영덕과 울진 그리고 완도의 수온이 예년보다 1~3℃ 정도 낮아지면서 성장 상태는 다소 저조하였지만 그 외 지역은 전월보다 좋아졌다.

넙치 폐사량, 2/4분기 증가추세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이번 분기의 폐사량은 전분기보다 20%가량 증가했다.

월별·크기별 폐사량은 수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500g 미만에서 폐사량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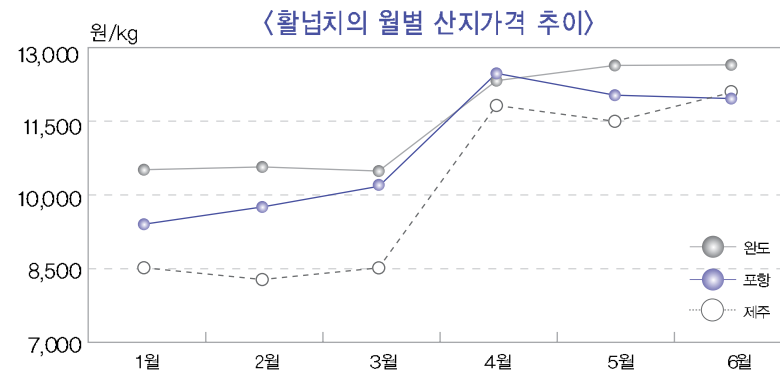
지역별 폐사율은 제주와 완도가 각각 전체의 53%, 34% 정도였으며, 기타 지역은 약 1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 동향

2/4분기 활넙치 산지가격, 전 분기 보다 25.2% 상승

2/4분기의 1kg 크기 활넙치 산지가격은 출하 보유 물량 감소로 지난 분기보다 25.2% 상승한 평균 12,056원이었으며, 이 가격이 6월까지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와 포항은 3월 이후 크게 상승하여 6월에는 각각 kg당 평균 12,000원, 11,800원이었는데, 이는 대형어(1.5kg 이상)의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완도도 3월 이후 상승한 가격이 5월에 실시된 정부 수매의 영향을 받아 6월은 kg당 12,5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자료: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포항, 제주, 완도)

주: 제주는 마리당 1kg 크기의 가격, 중량은 +50g, 가격은 ± 500원/kg 차이가 있음

도매가격, 전 분기 대비 상승

2/4분기의 활넙치 도매가격은 산지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에 반입되는 양도 줄어 지난 분기 대비 20% 이상 상승하였다.

모든 시장에서 도매가격이 지난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인천과 부산은 지난 분기 대비 각각 22.7%, 31.3% 상승하였다.

〈활넙치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 분	3월	2/4분기				
		4월	5월	6월	평균가격	1/4분기 대비(%)
인천할어 도매업협동조합	10,500	13,875	12,800	12,500	13,058	22.7
하남할어 유통조합	11,000	14,100	13,100	13,000	13,400	19.1
부산할어 도매업협동조합	9,600	12,500	12,100	12,500	12,367	31.3

자료: 각 시장별 조사가격, 6월은 잠정치

주: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

소비자가격, 작년 2/4분기 대비 상승

활넙치 소비자가격은 피쉬세일을 제외하고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바다마트와 대형소매점은 kg당 평균 29,940원, 31,164원으로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다. 반면 피쉬세일은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한 kg당 평균 27,000원대였다.

〈활넙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 분	3월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월	5월	6월	평균가격	1/4 분기 대비(%)	
바다마트 ¹⁾	30,135	30,167	30,229	29,089	29,940	0.3	13.9
대형소매점 ²⁾	30,933	31,207	31,023	31,262	31,164	0.2	10.7
피쉬세일 ³⁾ (싱싱회)	30,375	26,375	27,900	27,900	27,392	-15.4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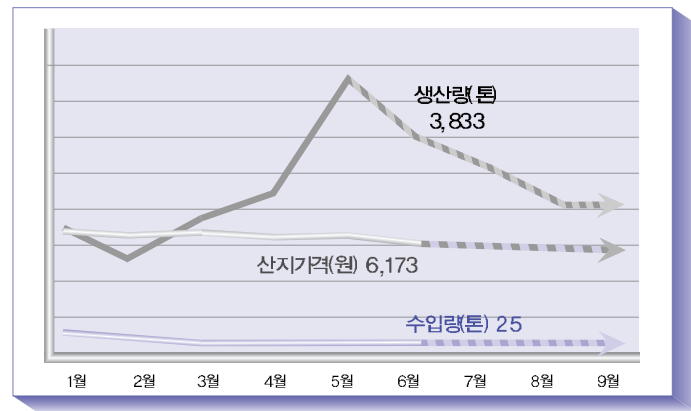
주: 1)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활넙치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임. 6월 가격은 잠정치

2) 당 센터 조사원이 전국 5개 주요 도시의 45개 유통업체를 방문·조사한 수치

3) 수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fishsale.com>), 싱싱회는 활어 1kg의 가격임.

03

조피볼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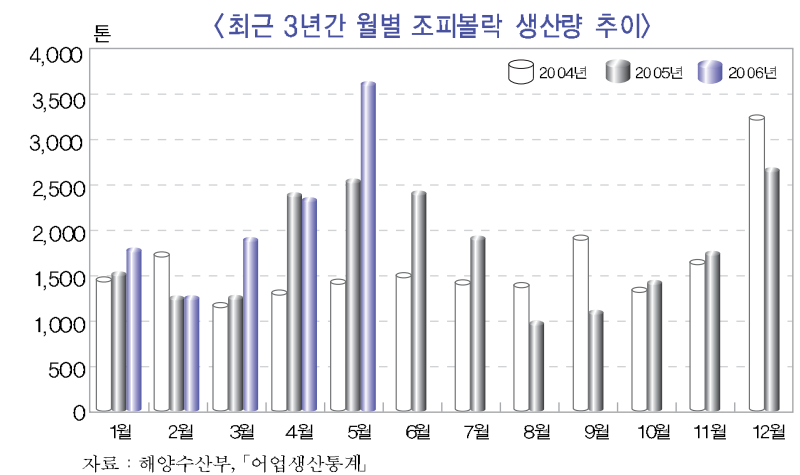
수급전망

- 4월 이후 출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5월에는 3,800여 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신규입식을 위해 가두리를 비우는 계절적 요인도 있었지만 2004년 이후 입식된 물량이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결과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6월 현재 Kg당 6,200원 정도를 보여 작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약세 추세는 7월 이후 물량 출하가 계속 이어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동향

- 5월까지 생산량, 작년 대비 크게 증가

1월부터 5월까지의 생산량은 11,925톤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4월에 작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3,328톤, 5월은 51.9% 증가한 3,833톤이었다.



- 5월 생산량, 최근 3년 내 가장 많아

월별로는 2월 이후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5월은 전월에 비해 64.6%나 증가하여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많은 출하가 이루어졌다. 이는 4월 들어서부터 양식어가들이 올해 신규 입식을 위해 출하를 대폭 늘리기 시작한 데다 5월에 실시된 정부 수매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 경남, 전국 생산량 점유비율 증가 추세

지역별로는 경남의 5월 생산량이 3,191톤으로 전월 대비 85.8%, 작년 동월 대비 65.6% 증가하여 전국 조피볼락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또한 전국 생산량 중 경남의 비율은 3월이 65%, 4월 74%, 5월에는 83%를 차지하여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충남과 경북의 5월 생산량은 전월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전남은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별 조피볼락 생산량 현황〉

(단위: 톤)

구분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전국	1,913	2,328	3,833	64.6	51.9
충남	27	25	97	288.0	-11.8
전남	443	558	443	-20.6	16.3
경북	207	28	100	257.1	-3.8
경남	1,235	1,717	3,191	85.8	65.6
기타	1	-	2	-	-

자료: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주: 기타는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지역임

● 2/4분기 양성 상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

2/4분기 들어 수온이 작년에 비해 1~3℃ 낮게 형성됨에 따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양성 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는 치어 입식 후 어병 발생에 따른 폐사량이 소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장도 다소 부진하여 작년에 비해 좋지 못한 양성 상태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통영, 거제, 완도, 신안에서 5월에 이어 6월에도 양성 상태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수, 남해 및 기타지역은 6월 들어 양성 상태가 작년보다는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월 생산량,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

지역자문위원 조사결과, 6월의 조피볼락 생산량은 전월에 비해 일부 지역에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피볼락의 주 산지인 통영의 생산 동향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6월의 전국 생산량은 작년 동월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통영, 완도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지역들은 전월보다 감소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입식량, 작년 대비 감소

올해 조피볼락 입식은 지난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되어 6월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입식량은 작년과 비교하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에

가격동향

● 조피볼락 산지가격, 작년 2/4분기 대비 하락

이루어진 대량 입식과 올해 출하부진에 따라 양성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들어 조피볼락의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양식어가들이 입식을 기피하거나 타 어종으로 전환을 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해는 돔, 농어 등이 폐사함에 따라 양성공간이 확보되어 작년에 비해 조피볼락 입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피볼락 산지가격은 kg당 6,603원으로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각각 0.7%, 31.3% 하락하였는데, 이는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포항과 통영의 산지가격이 kg당 8,389원, 6,017원으로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입식을 대비해 양식 어가들이 출하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여수는 정부 구매의 영향을 받아 지난 분기 대비 5.1% 상승하였다.

〈조피볼락의 산지별 위판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3월	2/4분기					
		4월	5월	6월	평균 가격	1/4 분기 대비 (%)	전년 동기 대비 (%)
평균가격	6,757	6,630	6,907	6,173	6,603	-0.7	-31.3
포항	9,765	9,570	8,108	8,306	8,389	-14.1	-26.3
여수	6,564	6,300	7,174	7,249	6,922	5.1	-18.9
통영	6,697	6,826	6,283	5,557	6,017	-8.0	-33.1

자료: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여수, 포항), 육지수협(통영)

주: 6월의 가격은 잠정치

● 도매가격, 지난 분기 및 전년 동분기 대비 하락

조피볼락의 도매가격은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다. 시장별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이 kg당 평균 7,534원으로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2%, 24.0% 하락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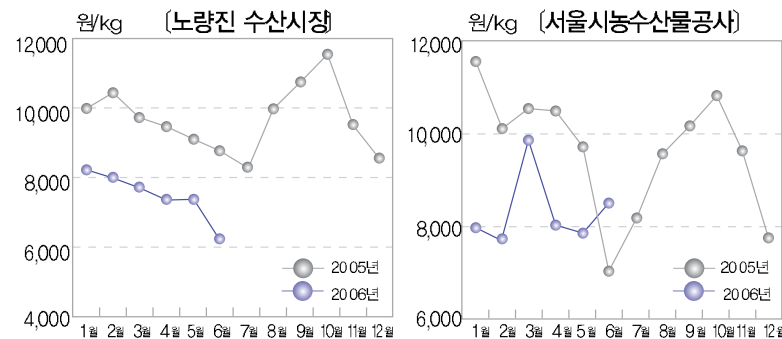
굴

04

* 대형어: 700g 이상
중형어: 600g 전후
소형어: 400g 미만

데, 이는 시장 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농수산물공사의 대형어 가격은 3월의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제외하고 kg당 평균 8,000원에 거래되었으며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에 비해 하락하였다.

〈연도별·월별 조피볼락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대형어 조사가격,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6월의 가격은 잠정치)

● 소비자가격, 3월 이후 보합세

이 분기의 조피볼락 소비자가격은 3월 이후 지속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바다마트는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9%, 1.3% 하락한 kg당 평균 30,363원이었다. 반면 대형소매점은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2%, 16.2% 상승한 kg당 평균 28,767원이었다. 피쉬세일은 kg당 평균 29,000원 대에 거래되어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에 비해 보합세를 보였다.

〈조피볼락 소비자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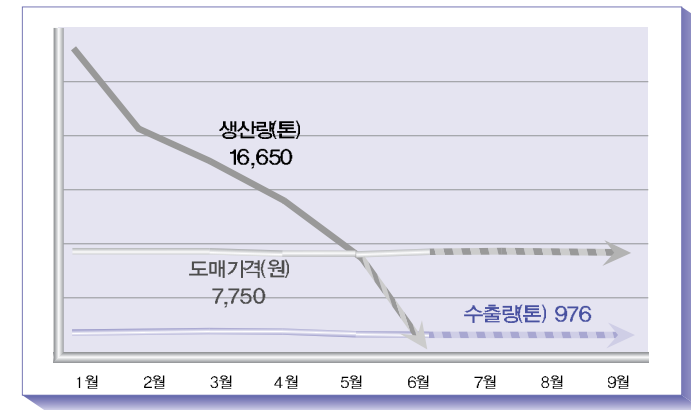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3월	2/4분기					
		4월	5월	6월	평균가격	1/4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바다마트 ¹⁾	30,135	30,167	30,229	29,089	30,363	-3.9	-1.3
대형소매점 ²⁾	30,933	31,207	31,023	31,262	28,767	2.2	16.2
피쉬세일 ³⁾ (싱싱화)	30,375	26,375	27,900	27,900	29,089	-0.5	0.3

주: 1)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조피볼락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임. 6월 자료는 잠정치

2) 당 센터 조사가원이 전국 5개 주요 도시의 45개 유통업체를 방문·조사한 수치

3) 수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fishsale.com>), 싱싱화는 활어 1kg의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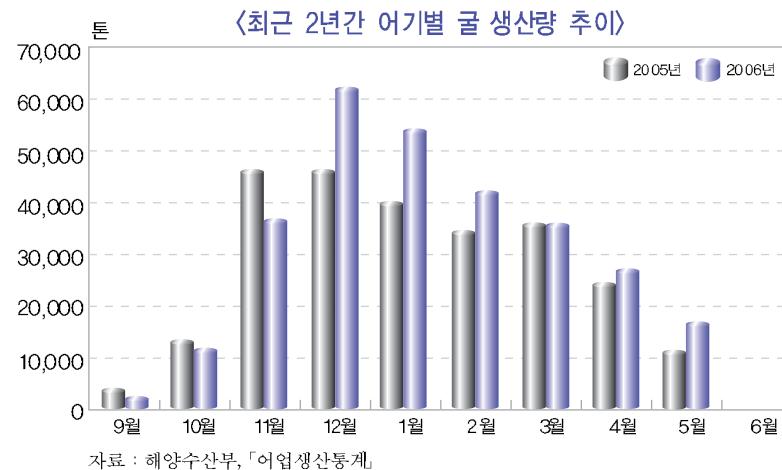
수급전망

- 어기 초인 작년 11월까지 생산부진 경향을 보였으나 12월 이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2006년산은 전체적으로 약 28만 5천여 톤이 생산되어 2005년산에 비해 12.9% 증가하였다. 반면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은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 생산증가와 대일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4분기 굴 도매가격은 6,800원~7,700원대로서 작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작년 말 김치파동으로 인해 굴 도매가격이 10,000원까지 상승한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3/4분기에도 2006년산의 영향으로 2/4분기보다 다소 상승한 8,00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생산동향

● 2006년산 굴 생산량, 전년산보다 큰 폭 증가

2006년산 굴 생산은 어기 초에 중굴의 폐사 등으로 작황이 좋지 못하였으나 주 생산 시기인 12월부터 해황이 안정됨에 따라 폐사현상이 없어지고 성장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산 굴 생산량은 28만 5,070톤으로 2005년산에 비해 12.9% 증가하였다. 이는 굴 성장상태가 3월 이후 어기 말까지 예년에 비해 양호하게 유지되었으며, 경남 일부지역의 패독 발생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어가들이 조기에 채취를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3월이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인 3만 5,655톤이 생산되었으며, 4월과 5월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5.7%, 56.3% 증가한 2만 8,069톤, 1만 6,650톤을 기록하였다.



● 5월 생산량, 작년보다 크게 늘어

5월의 지역별 굴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남이 작년 동월에 비해 56.1% 증가하면서 전국의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전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지역 역시 작년에 비해 높은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한편 투석식 굴이 주로 생산되는 충남의 5월 굴 생산량은 84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작년 동월에 비해 61.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 굴 생산량 현황〉

(단위: 톤)

구분	2005년	2006년				
	5월	3월	4월	5월	전월 대비 (%)	전월 동월 대비 (%)
전국	10,651	35,655	28,069	16,650	-40.7	56.3
충남	52	1,106	462	84	-81.8	61.5
전남	2	4,668	2,470	33	-98.7	1550.0
경남	10,542	29,392	24,825	16,452	-33.7	56.1
기타	55	489	312	81	-74.0	47.3

자료: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주: 기타는 부산, 경기, 강원지역 임.

● 2/4분기 수하식 굴 위판량, 작년 동기 대비 26.2% 증가

2/4분기 수하식 굴 위판량은 작년 동기보다 26.2% 증가한 1,684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굴 생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수하식 굴의 주 산지인 경남 3개 수협 위판량을 살펴보면, 작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1,661톤이었다. 이는 수협이 계통판매 비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장외유통업자를 영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수하식 굴 위판량 추이〉

(단위: 톤)

구분		2006년				
		4월	5월	6월	2/4분기 평균	전년 동기 대비(%)
합계		1,224	355	105	1,684	26.2
경남	굴수하식수협	1,129	343	105	1,577	29.3
	고성군수협	55	10	—	65	-25.6
	사천수협	18	2	—	20	50.8
전남	여수수협	23	—	—	23	52.7

자료: 각 수협

주: 알굴 기준임.

● 전분기에 이어 수하식 굴 양성 상태, 매우 양호

* 빈산소수괴: 산소 농도가 극히 낮은 물 덩어리

2006년산 굴의 양성 상태는 지난 분기에 이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번 분기 중 빈산소수괴* 등 굴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연현상이 없었으며, 해적생물의 부착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굴의 비만도가 높고 채취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전기채묘,
경남 불량,
전남 양호

올해 전기(前期) 채묘 실적은 경남은 매우 불량하고 전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예년에 비해 2℃정도 수온이 낮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유생의 출현이 좋지 못해 채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산 가덕만에서의 채묘도 부산신항 공사의 영향을 받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광양만 일대에서 유생의 출현이 좋아 채묘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공 채묘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수하식 굴은 채묘를 거의 자연 채묘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기(中期) 채묘 결과에 따라 2007년산 굴 종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07년산 굴 양성
시설 7월 중순 완료

2007년산 수하식 굴 양성시설은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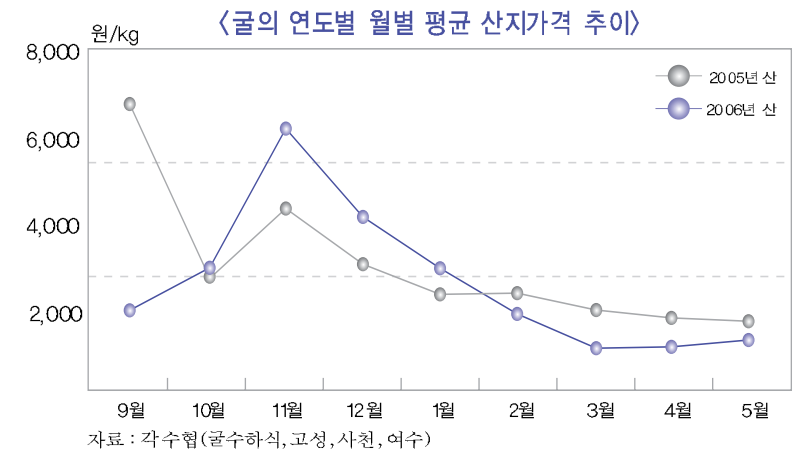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통영이 6월에 본 양성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거제는 7월 중순까지 완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는 작년보다도 본 양성시설을 10~15일 가량 빨리 하려는 추세를 보여 7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동향

● 2006년산 굴 산지
가격, 작년 대비
8.8% 상승

2006년산 굴의 산지 위판가격은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기초의 작황 부진으로 작년 대비 8.8% 상승한 kg당 4,376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1월까지의 작년 동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김장에 따른 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부터 가격이 하락하여 5월까지의 작년 동월 대비 10% 이상 낮은 kg당 평균 2,800원대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굴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도매가격,
지난 분기 대비 하락

생굴 도매가격은 kg당 7,362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2.5% 하락하였다.

그러나 작년 동기 대비 8.1% 상승하였는데 이는 3월부터 굴이 가공용으로 소비되면서 생굴의 시장 반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시장별로는 노량진 시장은 kg당 4,254원으로 지난 분기 및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5%, 5.7% 상승하였으나,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중품 도매가격은 각각 16.4%, 5.5% 하락한 kg당 4,935원이었다.

〈생굴의 도매가격 추이〉

(단위 : 원/kg)

구분		3월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월	5월	6월	평균가격	1/4 분기 대비(%)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7,186	6,870	7,465	7,750	7,362	-2.5	8.1
노량진 수산시장		3,457	3,892	5,057	5,782	4,254	7.5	5.7
서울시농수산물 공사(가격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	7,217	6,396	6,529	6,765	6,563	-10.5	3.4
	하	5,600	5,040	4,963	4,802	4,935	-16.4	-5.5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조사가격,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6월 가격은 잠정치)

● 소매가격, 지난 분기 대비 하락

이 분기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생굴 상품(上品) 소매가격은 지난 분기 대비 9.6% 하락하였으나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0.1%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이 지난 분기 대비 각각 10% 이상 하락하였으나, 부산은 kg당 평균 11,000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굴 상품의 소매가격 추이〉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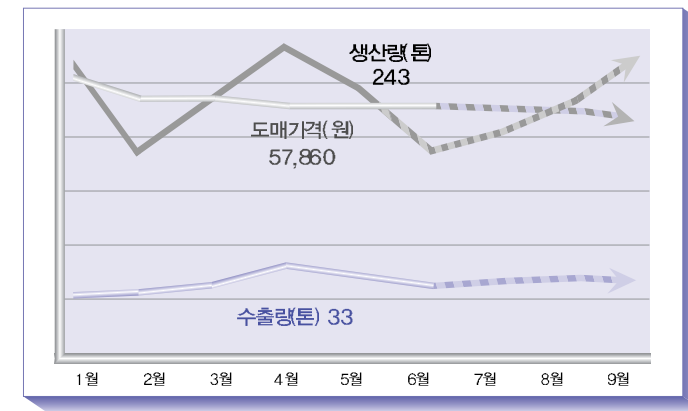
구분	3월	2/4분기					1/4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4월	5월	6월	평균가격			
소매 가격	전국	10,092	9,983	9,458	9,750	9,730	-9.6	0.1
	서울	11,362	9,300	8,950	10,000	9,417	-18.8	-6.0
	부산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2.7	9.8
	대구	8,523	8,000	8,000	-	8,000	-10.1	-19.3
	광주	8,297	7,800	8,000	-	7,900	-23.0	20.8
	대전	10,950	10,950	9,261	8,833	9,681	-13.0	-3.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주: 대구와 광주는 6월 거래실적이 없었음

전복

05



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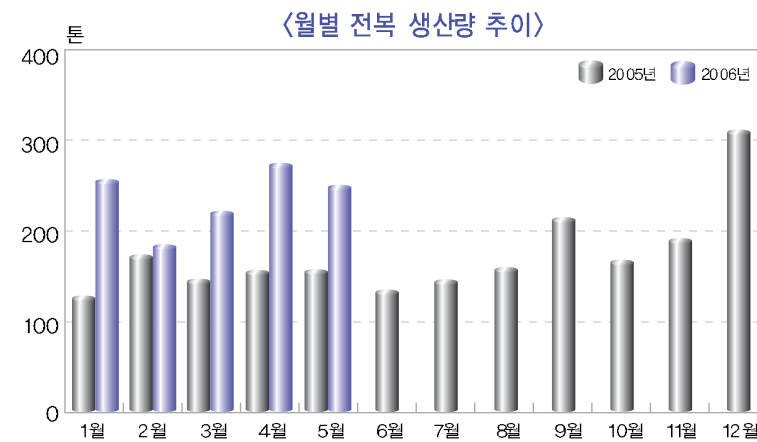
- 5월까지의 출하량은 1,208톤으로서 작년 동기간 대비 65% 증가하였다. 출하량 증가추세는 태풍으로 인한 먹이공급에 영향을 받아 3/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말까지 2,000톤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같은 국내 출하량의 증가는 가격하락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1/4분기에 작년 보다 30% 가까이 하락한 kg당 60,000원 수준이었으나 3/4분기 이후에는 더욱 떨어져 55,000원~56,00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 5월까지의 전복 생산량, 작년 동기 대비 65.3% 증가

2006년 5월까지의 전복 생산량은 1,208톤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65.3%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구이용 전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작은 크기의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에 각각 230톤과 280톤이 생산되었다.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년도

- 완도의 전복 생산량, 작년 동기 대비 44.5% 증가

2006년 5월까지의 지역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완도산이 작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한 857톤이었다. 신안과 진도산은 각각 112톤, 78톤을 기록하였다.

- 2/4분기 전남 전복 치패 입식량, 약 1억 2,600만 마리

제주도를 제외한 해양수산사무소 담당자 조사 결과, 2006년 2/4분기에 약 1억 2,600만 마리의 치패가 입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0% 감소한 약 6,100만 마리가 입식되었다. 그리고 해남 4,100만 마리, 신안 1,300만 마리 순이었다.

- 6월의 전남 양성 물량, 약 3억 9,800만 마리

6월 말 기준으로 전남의 양성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한 3억 9,800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양식어가들이 이번 분기에 치패 입식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3~4월 입식이 이루어진 2~20g 미만인 1억 8000만 마리로 전체 전라남도 양성 물량의 45.2%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전복 양성량 현황〉

(단위 : 만마리)

구분		2~20g 미만	20g~50g 미만	50g~120g 미만	120g 미만	합계
전남	소계	18,007	13,067	7,693	999	39,766
	완도	13,003	9,623	5,723	250	28,599
	여수, 고흥	1,170	990	740	500	3,400
	진도	1,240	557	500	3	2,300
	신안	744	467	92	21	1,324
	해남	1,850	1,430	638	225	4,143
제주 ¹⁾		0	0	0	0	0

자료 : 각 지방 해양수산사무소 조사 집계자료, 2006년 7월 6일 기준

주 : 1) 제주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 7월의 전남 전복 생산량, 300만 마리에 이를 듯

전라남도 각 지방해양수산사무소 담당자 조사 결과, 7월의 전복 출하량은 300만 마리에 이르며, 주 출하 규격은 70~150g 크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완도에서 소형 전복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어 작년 동기간에 비해 27% 이상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신안, 진도 등 다른 지역은 작년에 비해 출하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양식 어가들이 산지가격이 낮아 추석 명절 특수에 대비하여 대량 출하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여름 행락철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소량 판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7월의 전남 종묘 생산량, 약 360만 마리 추정

7월의 전복 종묘 생산량은 약 360만 마리 정도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진도에서 2005년산 종묘 판매가 끝났고, 해남은 잔여 종묘를 방류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기타 나머지 지역은 신규 입식이 시작되는 9월 이후 종묘 출하가 예상된다.

가격동향

● 노화도 전복 산지가격, 작년 2/4분기 대비 20% 이상 하락

2/4분기 노화도산 전복의 산지가격은 모든 크기에서 작년 동기보다 평균 20% 이상 하락하였으며, kg당 마리 수가 많은 저가품일수록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규격은 13마리 크기로 작년 동기 대비 kg당 12,300원 정도 하락하였다.

반면 가격 하락폭이 가장 적은 규격은 8마리 크기로 작년 동기 대비 kg당 10,700원이 정도 하락하였다.

〈노화도산 전복의 월별·크기별 가격〉

(단위: 원/kg)

월 kg당 마리수	3월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월	5월	6월	평균가격	1/4 분기 대비(%)	
7마리	49,000	46,000	45,000	43,000	44,667	-10.1	-21.2
8마리	43,000	43,000	42,000	40,000	41,667	-7.4	-20.4
9마리	40,000	41,000	38,000	38,000	39,000	-5.6	-23.0
10마리	38,000	38,000	36,000	35,000	36,333	-8.4	-24.3
11마리	36,000	35,000	34,000	33,000	34,000	-8.1	-26.6
12마리	34,000	33,000	30,000	31,000	31,333	-10.5	-28.8
13마리	32,000	32,000	29,000	29,000	30,000	-9.1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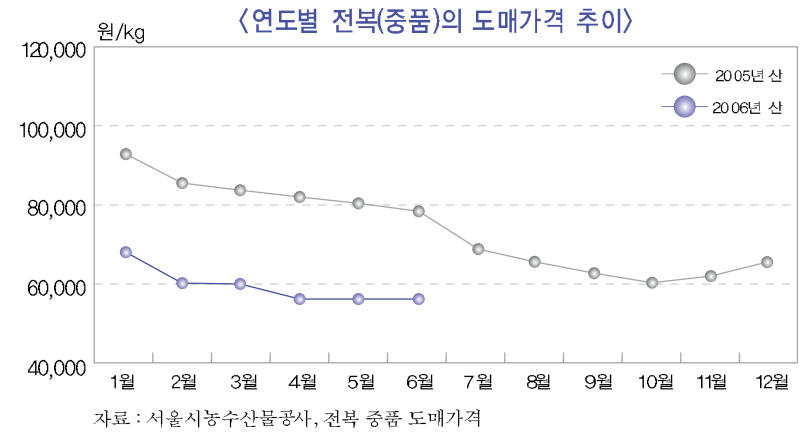
자료: 원도수협 노화도지점 전복직판장
주: 월별 가격 자료는 매월 15일 가격임.

● 전복 중품 도매가격, 작년 2/4분기 대비 26~30% 하락

지난 2/4분기의 전복 중품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에 비해 26~30% 하락한 kg당 57,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격은 지난 2월 6만원 이하로 떨어져 6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 동기 대비 kg당 20,000~25,000원 정도 하락한 것이다.

● 2/4분기 대형소매점 양식산 전복가격, 작년 동기 대비 36.8% 하락



대형소매점의 2/4분기 양식산 전복 소비자가격은 작년 동기에 비해 36.8%, 자연산은 1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다마트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 3.3% 상승한 kg당 98,509원으로 지난 분기보다도 약 4,000원 상승한 가격이다.

〈전복의 소비자 가격〉

(단위: 원/kg)

구 분		3월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4월	5월	6월	평균가격	1/4 분기 대비(%)	
바다마트 ¹⁾		101,720	98,138	98,889	98,500	98,509	1.8	3.3
대형 소매점 ²⁾	양식장	90,000	75,583	61,178	61,178	65,980	-23.5	-36.8
	자연산	171,714	155,077	155,600	144,000	151,559	-11.5	-16.9

주: 1)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전복 평균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임. 4~5월 자료는 확정치이며, 6월 자료는 잠정치임.

2) 전국(5개 주요도시) 11명의 시장가격 조사원이 45개 유통업체를 방문·조사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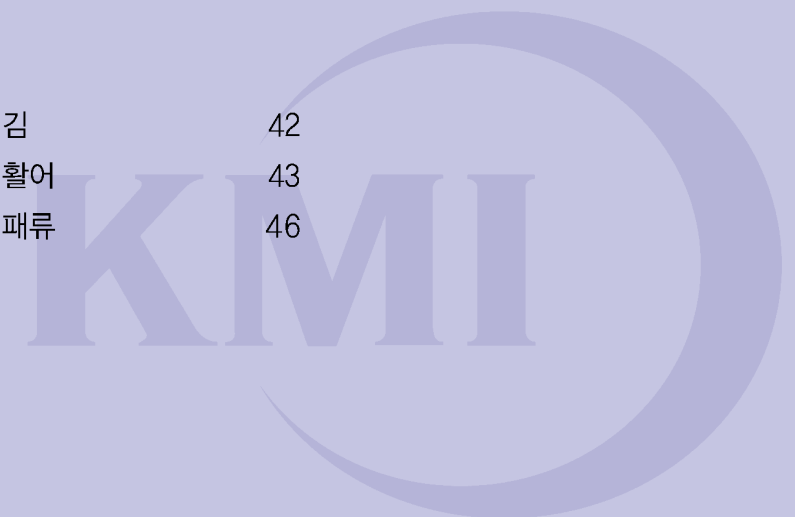
KOREA MARITIME INSTITUTE
FISHERIES OUTLOOK CENTER

Exports &
Imports

Part III

수출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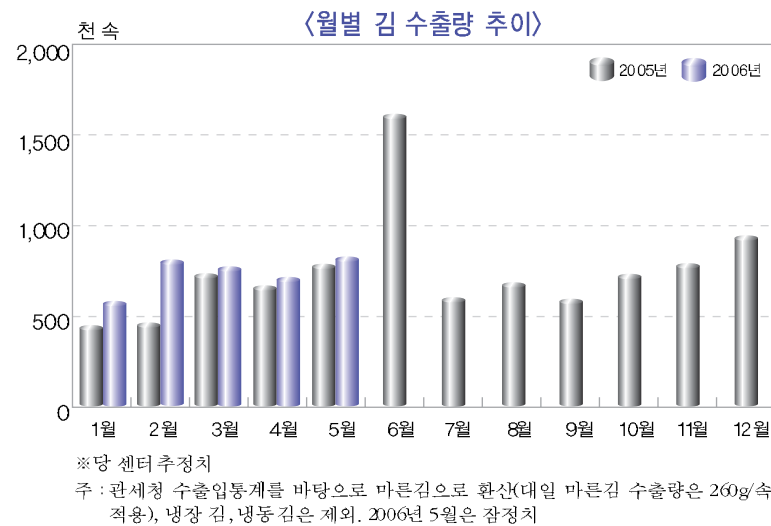
김	42
활어	43
패류	46



김 수출입동향

- 3~5월의 김 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5.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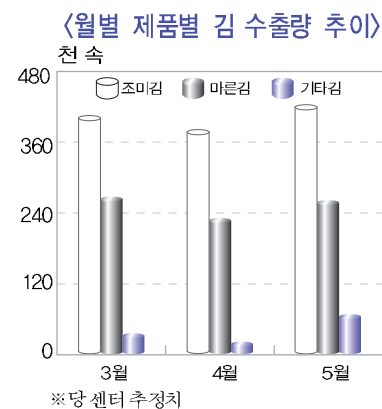
3~5월의 김 수출량은 208만 속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6%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에 각각 72만 속과 63만 속, 5월에는 74만 속이 수출되었다.



- 3~5월의 대미
김 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15.2% 증가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대미 수출량이 작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78만 속이었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으로의 수출량은 각각 45만 속과 21만 속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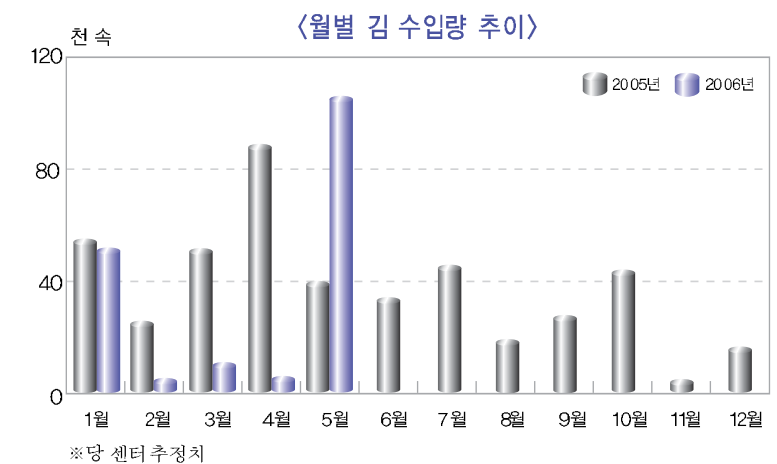
제품별로는, 조미김이 126만 속 수출되어 전체 김 수출의 60.6%를 차지하였으며 마른김과 기타김 수출량은 각각 74만 속과 9만 속이었다.



김 수출입동향

- 3~5월 중국산
마른김 11만 속 수입

3~5월의 김 수입량은 12만 속이었는데, 그중에서 중국산이 11만 속이었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에 각각 4천 속, 2천속이 수입되었으나, 5월에는 11만 속으로 전월에 비해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김 수출업체가 수출용 조미김 원료로 대량 구매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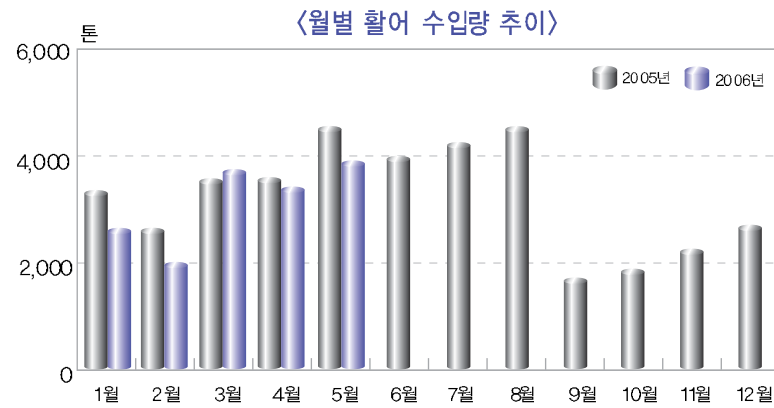


활어 수출입동향

- 3~5월 활어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34.2% 감소

3~5월의 활어 수출량은 1,350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4.2% 감소하였다. 월별로는 3월에 525톤이 수출되었으며, 4월과 5월은 각각 364톤, 461톤이었다.

한편 활어 수입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한 10,843톤이었다. 올해 5월까지의 활어 무역수지는 수출액이 2,428만 달러, 수입액은 8,047만 달러로 5,619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자료: 관세청, 「수출입 통계」, 각 년도

● 3~5월의 활넙치 수출량, 작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

3~5월의 활넙치 수출량은 612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2.2% 감소하였다. 월별로는 3월에는 314톤이 수출되었으나, 4월은 150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5월은 148톤을 기록하였다. 4월 이후 활넙치 수출량이 감소한 것은 계속된 엔화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국내 산지가격보다 낮아 넙치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월별 활넙치 수출추이〉

(단위: 톤, 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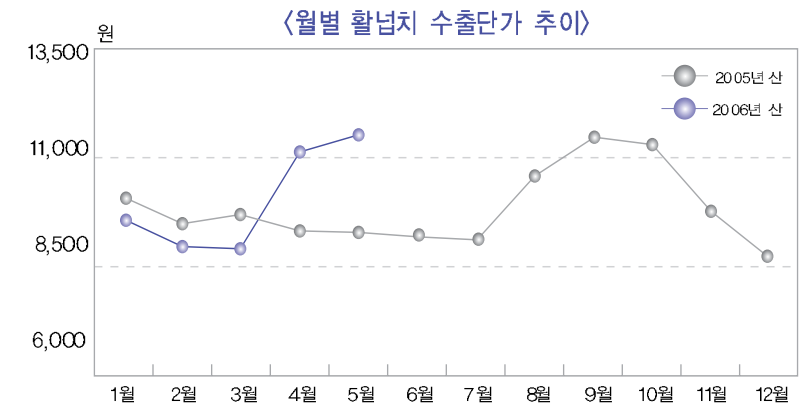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6년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5월		3월	4월	5월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물량	366	2,074	314	150	148	1,299	-1.3	-59.6	-37.4
금액	389	2,255	324	185	201	1,431	8.6	-48.3	-36.5

자료: 관세청, 「수출입 통계」, 각 년도

주: 활넙치류는 활가자미, 활서대를 포함(현재 활넙치만 수출되고 있음)

● 활넙치 수출단가, 4월부터 상승

5월의 활넙치 수출단가는 kg당 11,802원으로 3월 이후 계속 상승하였다. 이는 국내 산지가격 상승분이 수출 가격에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 「활어수출입 통계」

● 3~5월의 활동 수 입량, 작년 동기 대비 88.0% 증가

3~5월의 활동과 활농어 수입량은 각각 2,258톤과 1,638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8.0%와 16.6%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넙치류 수입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했는데, 이는 저가의 중국산 활어 수입에 대한 정부의 원산지 표시 단속과 불법 무역 관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활어 품목별 수입량 동향〉

(단위: 톤)

구분	3월	4월	5월		전년 대비	
			당월	누계		
계	3,768	3,190	3,885	15,489	-11.8	-11.8
활농어	556	383	699	2,202	28.5	-0.8
활민어	196	56	348	626	-33.2	-68.4
활동	813	704	742	3,291	54.9	99.3
활넙치류 ¹⁾	0	2	0	16	-100.0	-97.0
활조피볼락	6	42	25	335	-28.6	-23.9
기타 ²⁾	2,197	2,003	2,071	9,019	-23.2	-16.0

자료: 관세청, 「수출입 통계」, 각 년도

주: 1) 활넙치류의 수입은 주로 활가자미 등이 수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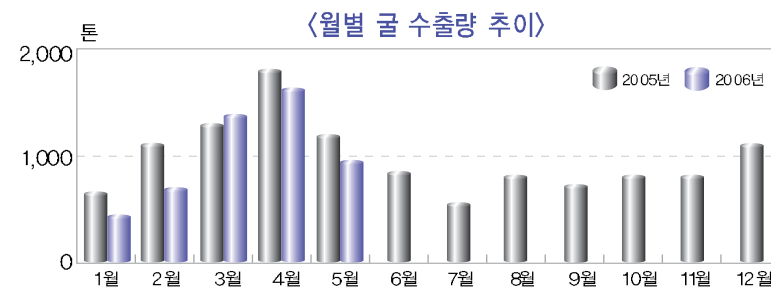
2) 기타는 상기 5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활어임.

패류 수출입동향

- 3~5월의 굴 수출량, 작년 동기 대비 8.3% 감소

3~5월의 굴 수출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 감소한 3,889톤을 기록하였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에 각각 1,406톤과 1,507톤이 수출되었으나, 5월은 976톤으로 감소되었다.

제품별로는 냉동굴이 2,980톤이 수출되어 전체 굴 수출의 76.6%를 차지하였고, 굴 통조림은 494톤이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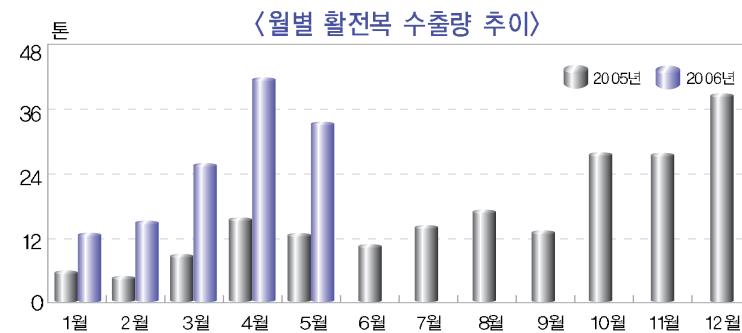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계」, 각 년도

- 3~5월의 활전복 수출량, 작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3~5월의 활전복 수출량은 101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5.8% 증가하였으며,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이는 수출 업체들이 최근 국내 가격이 높아 수출이 주춤한 활넙치를 대신하여 가격이 하락한 활전복의 수출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에 각각 26톤과 42톤이 수출되었으며, 5월 수출량은 33톤이었다.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계」, 각 년도

Market & Information

시장동향

김
활어

48
51

KMI

김 시장동향

● 대학생 김 선호, '맛'과 '간편성' 때문

대학생들의 김 선호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36.6%가 '맛이 좋아서'라고 답하였으며, 36.0%는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가격'과 '습관', '건강' 등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들이 김을 선호하는 이유〉

선호이유	도수	비율(%)
맛이 좋아서	124	36.6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	122	36.0
가격이 저렴해서	39	11.5
습관적으로 먹기 때문에	36	10.6
건강에 좋아서	17	5.0
기타	1	0.3
합계(복수응답 포함)	339	100.0

※ 서울지역 대학생(236명)대상 설문조사(2006.4.18~20) 결과

● 대학생의 61.3%, 마른김보다 조미김 선호

대학생들은 종류별로는 조미김(61.3%)을 선호하며, 크기별로는 절단김(56.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제시한 김의 선택 이유와 같이 '김의 간편성'이 김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김에 대한 선호도〉

종류별	비율(%)	크기별	비율(%)
조미김	61.3	절단김	56.8
마른김	15.7	전장김	19.5
둘 다 동일함	23.0	둘 다 동일함	23.7
합계	100.0	합계	100.0

● 김 산지, 완도라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아

대학생들의 김 산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 김 산지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다른 김 산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산지에 대해 응답자의 70.9%는 맞게 답하였으며, 그 중 53.2%가 '완도'를 꼽았다. 그 외에 부산, 해남, 진도, 고흥, 신안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29.1%는 산지가 아닌 곳을 산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산지가 아닌 대천, 여수, 광천, 남해 등을 김 산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주요 김 산지인 진도, 고흥, 신안, 서천, 영광보다 더 높았다.

〈김의 주산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

구분	도수	비율(%)	소계(%)
산지	완도	75	53.2
	해남	6	4.3
	진도	4	2.8
	고흥	2	1.4
	신안	1	0.7
	영광	1	0.7
	부산	7	5.0
	서산	2	1.4
	서천	1	0.7
	당진	1	0.7
비산지	대천	9	6.4
	여수	8	5.7
	광천	7	5.0
	남해	6	4.3
	제주	3	2.1
	울릉도	2	1.4
	통영	2	1.4
	거제	2	1.4
	속초	1	0.7
	동해	1	0.7
합계(복수 응답 포함)		141	100.0
			100.0

주 : 무응답 95명

● 김 브랜드 인지도, 특정브랜드에 집중

대학생들의 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6%는 D사의 'Y김'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상위 5개 김 브랜드의 인지도가 전체 응답의 75.0%로 특정브랜드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브랜드 명	도수	비율(%)
D사	155	54.6
H사	27	9.5
S사	14	4.9
B사	9	3.2
P사	8	2.8
A사	8	2.8
기타 브랜드	63	22.2
합계(복수 응답 포함)	284	100.0

주 : 무응답 62명

● 마른김 생산량, 9,250만 속으로 추정

2006년산 김 생산량은 1억 959만 속으로 추정되며, 그 중 마른김 생산량은 전체의 84.4%인 약 9,250만 속, 자반김은 15.6%인 1,700만 속으로 추정된다.

〈2006년산 마른김 가공현황 추정〉

	내용	단위	계산 수치	비고
A	마른김 가공기계 1연식당 1일 생산량	속	300	
B	전국 평균 가공기계 연식	연식	7	5~16연식까지 다양함
C	1업체당 1일 생산량(7연식 기준)	속	2,100	1연식에 1일 300속 생산
D	마른김 가공업체 연간 가동 일수	일	120	평균 가동 일수
E	김 생산량(2006년산 KMI)	속	109,593,559	당센터 추정치
F	마른김 가공업체당 연간 생산량	속	252,000	$F = (A \times B) \times D$
G	마른자반김 생산량(마른김의 15.6%)	속	17,071,825	당센터 추정치(27개소)
H	마른김 생산량	속	92,521,734	$H = E - G$
I	2006년산 김을 가동한 가공업체 수	개	367	$I = H/F$ (마른김 가공업체)

※당 센터 추정치

주 : 마른자반김 생산량은 마른김의 생산단위인 '속' 으로 환산한 것임.

2006년산 김의 마른김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마른김 가공업체는 367개, 마른자반김 가공업체는 27개가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공업체별 가공능력을 보면 연간 마른자반김 가공업체별 물김 소요량은 마른김 가공업체의 약 2.5배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공업체별 가공능력 차이〉

구분	업체 수	업체별 가공량(속)	비고
마른김 가공업체	367	252,000	7연식 기준
마른자반김 가공업체	27	632,290	마른김 가공업체의 2.5배

※당 센터 추정치

주 : 2006년산 김 생산량을 1억 960만 속을 기준으로 하였음.

활어 시장동향

● 대학생, 주로 대형 횡집에서 외식으로 소비

조사대상 대학생들은 활어회를 주로 외식(75.8%)으로 소비하며, 활어회를 먹는 장소는 대형 횡집(36.4%)이나 동네 인근 횡집(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어회를 외식으로 먹는 경우에 각 소비처를 선택하는 이유로 '신선도와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대형 횡집의 경우 '부요리가 많아서'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동네 및 학교인근 횡집 그리고 일식집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좋아서'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활어회 외식 장소의 선택 이유〉

외식장소		대형 횡집 (화센터 포함)	중·소형 횡집			일식집 (스시점 포함)	합계
			동네인근	도소매시장	학교인근		
외식장소별 선호도		36.4	27.1	11.2	6.6	18.7	100.0
선택 이유	신선도와 맛이 좋아	17.3	12.5	7.5	2.5	8.1	47.9
	부요리가 많아서	10.1	2.8	1.2	0.8	1.9	16.8
	어종이 다양해서	0.6	1.4	1.2	0.8	1.3	5.3
	서비스가 좋아서	7.3	7.6	1.2	1.7	6.2	24.0
	기타	1.1	2.8	0.0	0.8	1.3	6.0

※서울지역 대학생(236명)대상 설문조사(2006.4.18~20) 결과

● 제주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 조례 제정

올해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안전성 검사에 관한 주요 내용은 검사 기관, 항목, 절차 및 자금 지원, 검사결과 통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넙치의 유통은 동조례 제8조에 의해 제한되며,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제13조에 따라 3차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산 넙치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내용〉

구분	해당조항	주요내용
검사 기관	제4조 ①, ②항	도지사에게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검사 항목	제3조 ④항	항목은 옥시테트라싸이클렌(OTC), kg당 0.2밀리그램 이하
검사 절차	제5조 ②항	안전성검사신청서를 반입·반출·유통 10일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금 지원	제4조 ③항	도지사는 안전성검사에 필요한 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
검사결과 통보	제6조 ①항	안전성검사 증명서를 반입·반출·유통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검사결과 유효기간	제6조 ④항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0일까지로 함.
유통금지 또는 제한	제8조	도지사는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반입·반출 유통의 금지, 폐기, 역류, 격리 또는 생산자로 반송 및 안전성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및 기준	제13조 별표2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반입·반출 유통한 자에게는 3차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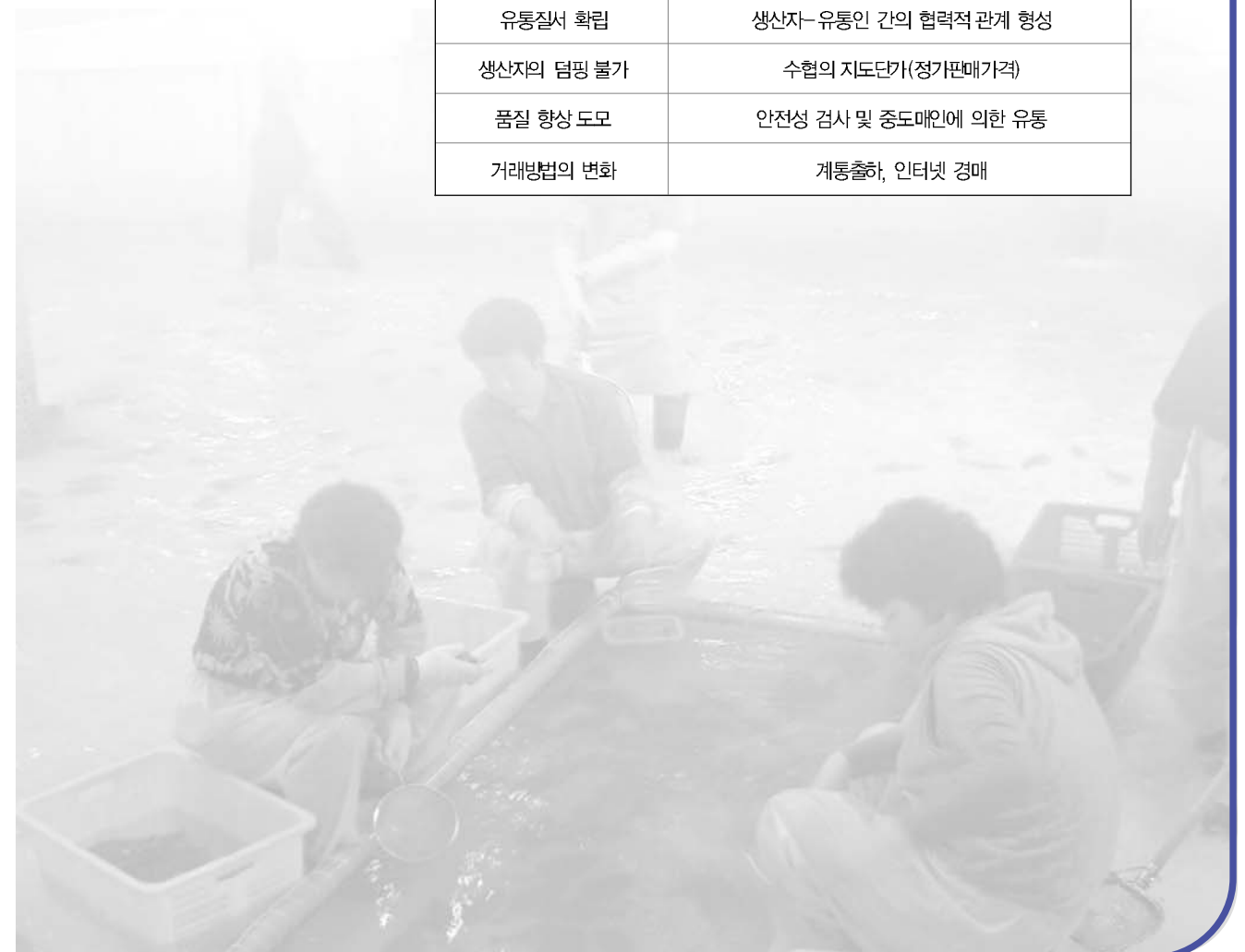
주 : 위의 내용 제주도조례 제2652호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발췌했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양식수산물의 ‘계통출하’가 실시되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넙치만이 지정 중도매인을 통해 국내유통 및 수출이 가능하다.

중도매인제 실시에 관한 관계자 면담결과, 제주산 넙치의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 및 ‘거래방법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제주지역 중도매인제 도입의 기대효과〉

기대효과	주요내용
가격 안정화	과다 경쟁 해소, 제도권 내에서의 유통
유통질서 확립	생산자-유통인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
생산자의 덤핑 불가	수협의 지도단가(정가판매가격)
품질 향상 도모	안전성 검사 및 중도매인에 의한 유통
거래방법의 변화	계통출하, 인터넷 경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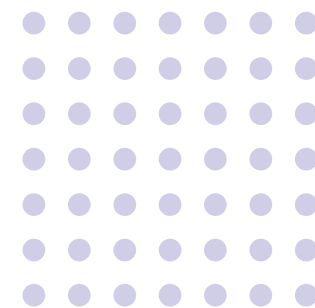




KOREA MARITIME INSTITUTE
FISHERIES OUTLOOK CENTER

Abroad

Part V



해외동향

일본	56
중국	62

K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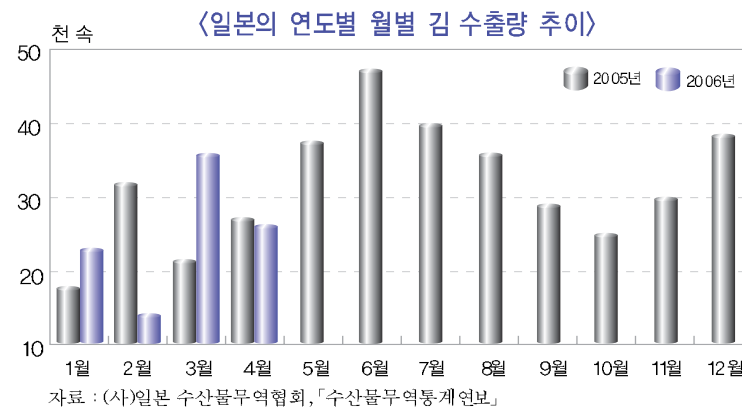
01

일본 해외동향

김

- 4월 일본 김 수출량,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감소

일본의 4월 김 수출량은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각각 1.8%, 27.8% 하락한 약 26만 속을 기록하였다. 국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월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미국과 대만이 각각 21.7%, 2.3% 증가한 9만 속, 1만 속을 기록하였다.



- 연간 김 소비액, 전년 대비 1.3% 증가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2005년 가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소비가 늘어난 품목은 음료, 조리식품, 야채·해조류 등이었다. 이 중 김 소비액은 1세대 당 평균 2,936엔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김 소비액이 증가한 원인은 간편성, 건강 여름철 행락수요 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海苔Times」(일본, 2006년 4월호)〉

- 2006년산 사가현 마른김 생산량, 사상 최고

2006년산 사가현의 마른김 판매량은 작년 대비 10.5% 증가한 2,100만 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판매액도 224억 엔으로 199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어기 초와는 달리 해황이 점차 호전되면서 물김 생산량이 증가하여 생산자들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일본 朝日新聞 2006. 4. 14〉

- 고품질「물김」의 장기 보존기술 개발

구마모토(熊本)현의 제일제망(第一製網)은 고품질 물김의 장기 보존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채취한 물김에 특수한 염장처리를 함으로써 김의 본래 맛과 향기, 영양소를 1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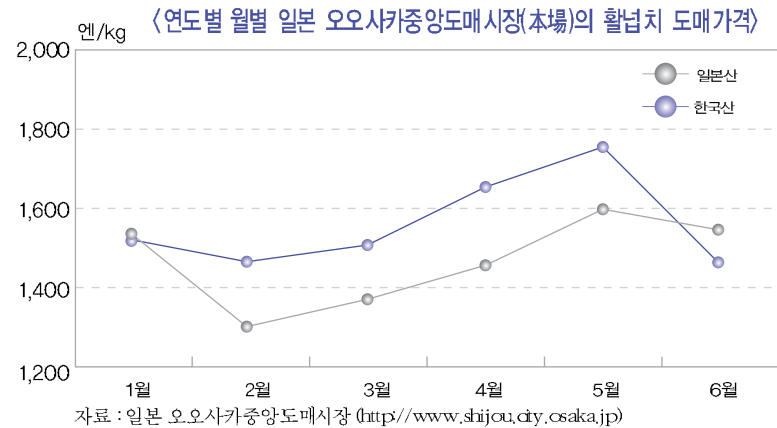
이 기술을 이용하면 조미가공 업체에 가공원료를 연중 공급할 수 있어 향후 다른 해조류에 이 기술이 응용된다면 해조류 전반에 걸친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 수산경제신문, 2006. 6. 15〉

활어

- 6월의 한국산 활넙치 도매가격, 전월 대비 크게 하락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에서 거래된 한국산 활넙치의 도매가격은 5월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나, 6월에는 전월 대비 16.8% 하락한 kg당 1,457원이었다. 일본산 역시 동일한 추세를 보여 6월에는 전월 대비 2.5% 하락한 kg당 1,558원을 기록하였다.



● 양식어 생산이력추적 제 규격 제정 회의 개최

3월 27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우정공사(日本郵政公社)에서 생산자, 사료업체, 유통업자, 소비자가 참가한 가운데 「양식어 생산이력추적제의 일본농림규격(JAS) 규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모든 육류, 농산물에 도입된 JAS 마크를 앞으로 수산물에도 적극 도입해 나갈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마크는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에게 생산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JAS의 규격 제정 경위 및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養殖」, (일본, 2006년 5월호)〉

● 외식 및 테이크 아웃 메뉴로 생선 인기

일본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되는 가운데 외식메뉴로 생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수산물의 특성상 외식 및 테이크아웃 체인점에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건강을 추구하는 일본인들에게는 실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일본 수산경제신문, 2006. 6. 5〉

● 휴대전화로 신선식품 전자거래 시작

일본 이토쥬(伊藤忠)상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선식품의 기업간전자거래(B to B)를 시작하였다. 올해 1월부터 어류를 중심으로 산지직송 조달 사이트「산지마켓플레이스」를 개설하여 실증 실험을 하였다. 또한 산지의 어협, 생산자, 레스토랑

● 에히메(愛媛)현에서 인정어업인제도 도입

등의 음식점을 연결하는 이 거래 방식은 10월부터 컴퓨터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본 수산경제신문, 2006. 6. 12〉

일본 에히메현은 올해부터 양식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 자체적으로 인정어업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어업인에게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3년에 걸쳐 45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1년간의 기초강좌 및 실천 연수를 통하여 어업인은 작성한 「어업경영고도화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현에서 검토한 후 인정어업인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일본 수산경제신문, 2006. 6. 16〉

패류

● 4월의 일본 생굴 도매가격, 전월 대비 약보합세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생굴 평균 도매가격은 2월 이후 시장 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4월에는 전월 대비 0.5% 하락한 kg당 618엔이었다. 지역별로는 미야기산은 kg당 362엔으로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각각 35.6%, 14.6% 상승하였으며, 이와테산도 전월 대비 1.2% 상승하였다. 반면, 히로시마산은 올해 들어 계속 하락하여 4월에는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10% 이상 하락한 kg당 1,645엔이었다.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생굴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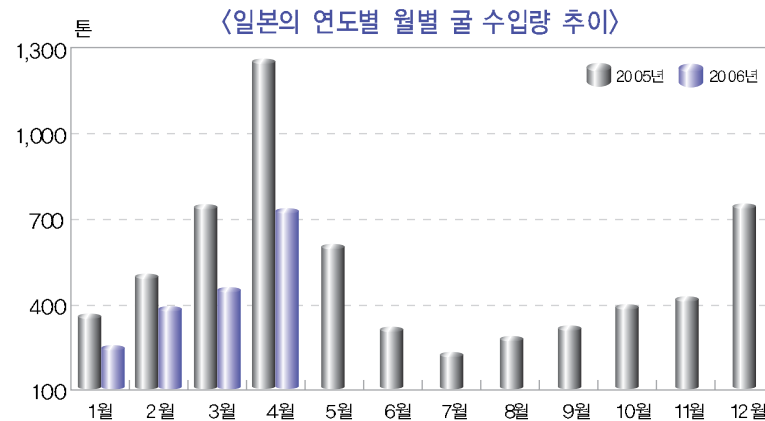
(단위: kg, 엔)

구분	2006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
반입량	286,368	175,918	71,372	79,462	11.3	-19.4
가격						
평균	430	450	621	618	-0.5	18.4
히로시마(廣島)	-	3,010	1,728	1,645	-4.8	-10.7
미야기(宮城)	274	276	267	362	35.6	14.6
이와테(岩手)	413	397	866	876	1.2	27.3

자료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 (<http://www.shiju-tokei.metro.tokyo.jp>), 2006년 6월 30일 기준

● 4월의 일본 굴 수입량,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일본 굴 수입량은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월에는 723톤으로 전월 대비 65.1% 상승하였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41.7%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별로는 한국은 1월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4월에는 작년 동월 대비 40% 이상 감소한 712톤이었으나, 뉴질랜드는 6톤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약 4.3배 증가하였다.



자료 : (사)일본 수산물무역협회, 「수산물무역통계연보」, 각년도

● 4월의 일본 전복 도매가격, 전월 대비 6.9% 상승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4월 전복 평균 도매가격은 시장 반입량의 감소로 kg당 7,618엔으로 전월 대비 6.9%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찌바산과 도쿄산이 전월 대비 각각 2.6%, 4.1% 상승하였으며, 미야기산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다.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전복 가격〉

(단위 : kg,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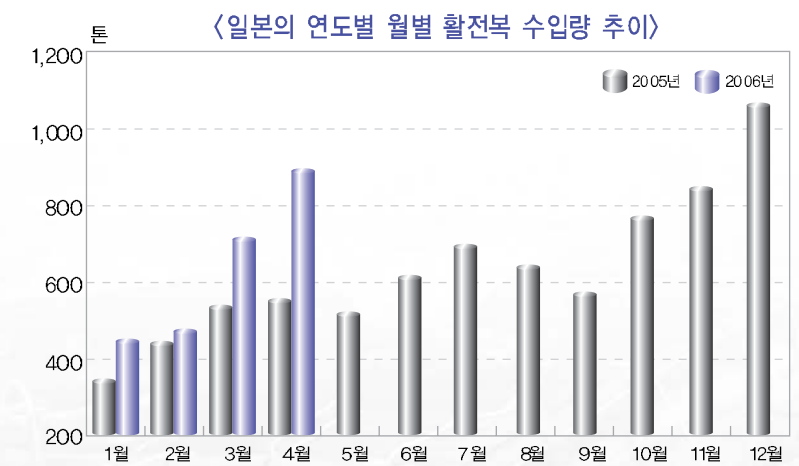
구분		2006년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	전년 동월 대비(%)
반입량		42,860	42,428	48,795	45,286	-7.2	-11.6
가격	평균	6,970	6,587	7,123	7,618	6.9	8.6
	찌바(千葉)	6,929	6,613	6,811	6,990	2.6	-4.7
	도쿄(東京)	5,511	5,509	6,158	6,409	4.1	14.1
	미야기(宮城)	7,917	7,213	8,652	8,641	-0.1	4.3

자료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tokei.metro.tokyo.jp>), 2006년 6월 30일 기준

● 4월의 일본 전복 수입량,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증가

일본의 활전복 수입량은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월에는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각각 32.6%, 59.0% 증가한 881톤이었다.

주요 수입국별로는 한국산이 1월부터 작년 동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여 4월에는 419톤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호주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산은 2월부터 감소하여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 21.3% 감소한 166톤, 85톤이었다.



자료 : (사)일본 수산물무역협회, 「수산물무역통계연보」

02

중국 해외동향

김

● 중국 제3차 김 입찰회, 장쑤성 쉰원강에서 개최

지난 3월 10일, 올해 들어 세 번째 김 입찰회가 장쑤(江蘇)성 쉰원강(连云港)의 야마코 김 유한회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입찰회에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6개국 116명의 상인이 참가했다. 이번 입찰회에서는 12,699상자의 김이 상장되었고, 51만 3,678속이 거래되었다. 이는 쉰원강 김 교역소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으로 속당 가격도 평소의 3~4배에 달했다. <中國日報 2006. 3. 10>

● 중국, 푸젠성 '마른 단김 가공기술 규정' 제정·반포

지난 3월 20일, 푸젠(福建)성은 단김(坛紫菜, 중국 토종 김) 산업 발전을 위한 '마른 단김 가공기술 규정'을 제정하고 가공표준 및 제품, 패스트푸드 가공기술 및 제품 등 4개 항목에 대해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이는 단김 가공산업의 발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표

● 중국 산둥성 둥잉시, 노출 부류식 김 양식 성공

준화규정은 단김의 수확, 가공, 포장 및 저장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진적이며 관리상의 용이성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福建省水产技术推广总站, 2006. 4. 3>

산둥(山東)성 둥잉(东营)시에서는 장쑤(江蘇)성에 이어 노출 부류식 김 양식방법을 도입하여 80㎡의 시험양식에 성공했다. 기존의 양식방법으로는 엽체가 7~8cm 정도 자라는데 비해 본 시험양식에서는 15cm 이상 자랐다.

한편 노출 부류식 양식은 양식기간이 짧고 종묘 채취원이 넓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가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 이 양식방법이 확대 보급되면 어업인들의 수익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东营日报, 2006. 5. 8>

● 산둥성, 마른김에 비소 검출

최근 산둥(山東)성은 지난(濟南)시 질병예방센터에 건어물 품질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5개의 김 표본에서 모두 비소의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는 인체에 유독한 화학물질로서 적은 양일지라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심장, 간, 신장 등 인체 기관과 신경계, 소화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한편, 이번 검사 결과 건어물의 합격률이 50%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중 세균 함유량이 기준치의 190배에 달하는 식품도 있었다.

<新华网 2006. 6. 21>

● 지메이 대학, "칼라 김" 생산

최근 지메이(集美)대학 수산학과 천창성(陈昌生)교수는 6년간의 연구를 통해 김의 돌연변이 유도, 세포 및 교잡 육종과 전통적인 선종 육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칼라 김 육종에 성공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색깔의 김 사상체와 엽상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 칼라 김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엽록

체 및 씹는 맛이 모두 달라 김의 새로운 품종을 배양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김의 퇴화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김 색소 세포에서 돌연변이 세포를 분리해내는 기술과 우량 품종을 선별하는 기술을 확립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中国食品产业网 2006. 4. 12〉

넙치

● 푸젠성, 저장성에 이어 대서양 넙치류 현장 검증 통과

2006년 3월,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수산기술보급소가 담당한 ‘대서양 넙치 도입 및 시험양식’ 과제가 푸젠성 해양어업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의 현장 검증을 통과하였다. 이는 작년 11월 저장(浙江)성 닝하이(宁海)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서양 넙치류(학명: *Paralichthys lethostigma*)의 시험양식 성공으로 해수 양식업에서 새로운 특산품이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넙치양식보다 양식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높다. 또한 푸저우시는 대서양 넙치류의 양식 가능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福建省水产技术推广总站 2006. 3. 10〉

● 중국 수산과학원, 넙치류의 번식과 양식 모델 연구 결과 발표

최근 중국 수산과학원 황해수산연구소에서는 ‘Southern Flounder(대서양 넙치류)의 번식과 양식모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성과로 연간 185만 5천마리의 종묘를 배양·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3종류(육상, 저수지, 가두리)의 양식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넙치 신품종 양식업의 산업화에 공헌할 것이다.
금번 연구 결과는 지난 2005년 산둥(山東)성 옌타이(烟台)시에서 종묘생산을 시작한 이후 6번째 성과이다.
〈中国水产科学研究院, 2006. 4. 13〉

〈‘Southern Flounder’에 관한 중국 해외정보〉

발표일자	해당 지역	주요 내용	비고
2005.11.03	옌타이(烟台)시	중국 토종넙치와 교잡 2만 마리 종묘생산	종묘생산
2005.12.13	저장(浙江)성 닝하이(宁海)시	시험양식 성공 인증 대규모 양식가능성 제공 기간: '05.02~'05.10 (9개월)	시험양식
2006.01.12	산둥(山東)성	기수(汽水) 연못의 넙치류 양식 기술 완료 신품종 개발과 동일한 효과 예상	양식방법
2006.01.23	푸젠(福建)성	넙치류의 생물적 특성과 생태적 습성 연구결과 발표 산란 육묘 성장 생존율, 번식 적합 수온 등	연구
2006.03.10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대서양 넙치류 도입 및 시험양식 연구결과 발표 평가팀의 현장 검증 통과	시험양식

주: 본 내용은 지금까지 해외(중국)정보를 통해 소개된 Southern Flounder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것임.

● 중국, 넙치 방류사업 실시

올해 6월, 중국 각 지역에서 약 65만 마리의 넙치 방류사업이 시행되었다. 텐진(天津)시는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 개인,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넙치 6천 마리를 포함한 20만 마리의 넙치를 방류하였다. 기증된 넙치에는 기증자의 이름과 날짜 등을 표시해서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가공업체별 가공능력 차이〉

사업실행 주체	방류 규모	방류 시기	방류 해역	비고
텐진(天津)시	20만 마리	6월 말경	텐진시 근해해역	기증된 넙치 6천 마리 포함
펑라이(蓬萊)시	20만 마리	6월 9일	펑라이 시창(西庄) 해역	수질 좋고 먹이 풍부한 해역임
옌타이(烟台)시	20만 마리	6월 19일	리자(李家) 여항 동북방면	해수온도와 수조온도가 일치하는 시기

주: 본 내용은 중국의 인터넷 신문 天津北方网, 中国渔业报, 中国新闻网 등의 넙치 방류에 관한 기사내용을 정리한 것임

전복

● 룡청, “철새형” 양식 방법으로 전복 성장률 높여

룡청(榮成)에서는 전복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의 푸젠(福建)성의 푸티엔(莆田) 근교의 바다로 옮겨 양식하고 이듬해 5월 다시 룡청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전복 양식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양식방법을 실시한 이후 전복의 폐사율이 과거 30%에서 5% 이하로 크게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전복의 성장 기간도 2~3년으로 단축되었다.

현재 룡청의 대규모 전복 양식장에서는 대부분 이 같은 “철새형” 양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水母網 2006. 6. 20〉

● 샤먼대학과 지메이대학 공동연구로 질병에 강한 전복 생산

최근 샤먼(由厦門)대학과 지메이(集美)대학이 공동 연구한 “전복의 유전자 개량 기술” 프로젝트 결과에 따르면, 전복의 육종(선종 選種)과 교잡 기술을 통해 2가지의 교잡 품종과 1가지의 육종을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이 중 대만종(種)과 일본종을 교잡한 전복인 “둥산(东山鲍) 전복” 100만 마리를 배양하는데 성공했다. 이 교잡 전복은 대조군인 대만종보다 생존율이 63.8%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질병 저항력이 높은 유전자 개량 양식 전복으로 인해 전복 양식업자들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科技日报 2006. 6. 17〉

해황 및 기상예보

01

● 7월 수온전망 (국립수산과학원)

7월의 해역별 수온분포는 동해 중남부 해역 18~24℃, 남해 20~25℃, 서해 중남부 해역 20~24℃의 범위를 보이겠으며, 평년에 비해 연안의 일부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저온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월에는 강한 복사열로 인하여 수온약층이 표층부근에서 형성되겠으며, 수온전선은 남해와 동해 남동부해역의 연안역과 외양역 사이에서 6월에 비해 더 강하게 형성되겠으며, 동해에서는 연안역 주변에서 약하게 형성되거나 균질한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역별 월별 수온분포〉

(단위 : ℃)

구분	동해	남해	서해
2005년 7월	19~26	24~28	21~27
8월	22~28	24~29	22~28
9월	21~26	22~27	20~26
10월	13~23	20~25	16~20
11월	16~21	17~22	15~19
12월	3~16	10~19	4~11
2006년 1월	5.5~13.0	6.0~15.1	1.7~5.2
2월	5.3~12.6	6.4~14.2	0.3~5.0
3월	7.4~12.5	8.8~13.6	3.7~6.9
4월	9.4~11.5	12.0~14.9	8.3~11.4
5월	9.5~14.4	13.0~16.3	13.7~17.5
6월	15.6~17.6	14.5~19.9	18.8~22.0
7월	18~24	20~25	20~24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월별 인공위성 관측자료.

주 : 2006년 7월은 전망치

● 기상예보(기상청)

- 기간: 7월~9월
- 발표일: 6월 23일

기온은 평년(평균기온 17~25℃)과 비슷하겠다. 7월은 북동 기류로 인해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저온현상이 예상되며, 8월은 평년과 비슷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고, 9월 전반에는 일시적인 고온현상이 예상된다. 강수량은 평년(497~911mm)과 비슷하겠으나, 7월 중순 후반부터는 점차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 장마 후에도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수급정보

Market Information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2006년 여름호 제2권 3호 통권6호

-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7-4 옥스포드 B/D 3층
 TEL (02)2105-4920~9 FAX (02)2105-4939
<http://www.foc.re.kr> E-mail foc@kmi.re.kr
 ■편집검 발행인: 이정환
 ■인쇄: 정양사 TEL (02)2263-0066
 ■발행: 2006년 7월 18일
 ■등록: 2005년 5월 24일 서울마02932